

알코올 중독에서 발견되는 무의식의 창조적 치유 활동: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백 기 홍**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의 심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여러 알코올 환자들의 경험 지평을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도 포괄하며 살펴보았다. 무의식 측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보고한 일련의 꿈들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꿈 분석은 치료 작업에의 환자의 참여, 치료자-환자 동맹 관계에도 유익하였으며, 환자의 무의식과 의식 모두를 함께 보다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자는 환자들의 의식에 자리한 문제로서 진솔한 감정 표현의 오랜 소외, 감정 재경험의 필요성, 모성의 품에 대한 오랜 갈망과 모성 재경험의 필요성, 이에 동반되는 부성 재경험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무의식 심층에서부터 이런 의식의 상황에 반응하여 강력한 원형적 정신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이에 수반하여 파괴적인 그림자 콤플렉스의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수일 : 2024년 3월 30일 / 심사완료 : 2024년 4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11일

*사례와 꿈의 인용을 허락해주신 A, C, B, D, F, J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기독병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Kihong Baek, M.D., Department of Psychiatry, Ulsan Christian Hospital, 34-49 Nammyeongni 1-gil, Dudong-myeon, Ulju-gun, Ulsan 44914, Korea

Tel: +82-52-263-5111, E-mail: artpass100@naver.com

Copyright ©2024, Korean Society for Analytica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보고된 꿈들은 의식의 관점·태도를 수정하며 치유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섬세한 보상 과정이 알코올 중독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무의식은 알코올 중독에서도 의식의 변화를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에 의식이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작용을 성실히 전개하고 있었다.

종합해 볼 때 알코올 중독은 의식에 범람하는 무의식의 에너지로 인해 현실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식성과 새로운 삶의 지평을 창조하고자 하는 전체적 정신활동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조건이기도 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은 당사자가 내면의 심적 진실에 눈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돕는 데 있어 치료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다양한 치료적 방법들도 결국은 이러한 성찰에 이바지하게 될 때 더욱 값진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심적 진실을 외면하며 그릇된 대상에만 집착하는 한, 무의식의 창조성은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어 부정적·파괴적 영향을 삶에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심 단어 : 알코올 중독; 분석심리학; 무의식; 창조적 치유.

들어가는 말

우리는 종종 조절이 안 되는 반복적인 폭음과 행동 문제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경우를 접하게 되고는 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관용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¹⁾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심리적 상황에 있는 것이기에 그토록 벗어나기가 힘든 것일까? 그래도 거기서 벗어난 회복자들이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뭘 경험한 것일까? 중독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케 만드는 치유의 계기들이 있다면, 이는 어떤 심적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것일까?

1)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이라는 용어가 치료 현장에서 보편적,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왔기에 본 논문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독”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intoxication”이 아니라 “탐닉(addiction)”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알코올 의존”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공식 진단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개편된 현재의 DSM-5에서 제시하는 용어는 “알코올 사용 장애”이다. 이는 기존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심리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실을 최대한 잘 살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의식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 즉 그가 모르고 있는 요소들 또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잘 살필 수 있어야 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모르는 걸 인식하고 살핀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해 본 연구자는 꿈 자료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장에 산출된 ‘의식이 모르는 내용’, 즉 ‘무의식의 자료’로서 꿈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심리학적 설명들이 있었는지를 개괄해보았다. 이를 위해, 중독에 관한 여러 심리학적 견해들을 분석심리학과 타 학파의 관점을 구분해서, 먼저 타 학파의 견해들을 간단히 개괄한 후,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의 견해를 따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중독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발견들이 타 학파의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과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개괄에 이어, 알코올 중독과 씨름하고 있는 남자 환자들이 보고한 꿈 자료를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며 그들의 심적 진실에 직접 다가가 보고자 하였다. 꿈 자료들은 당사자의 의식의 상황 및 삶의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분석심리학적 꿈 연상 작업을 통해 다루어졌다.²⁾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중독과 관련해 무의식에서는 정신의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의식은 중독이라는 문제의 발생과 치유에 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중독 당사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자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이로 인해 의식과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실제 치료와 관련해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아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된다는 것이 삶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담긴 심적 사건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꿈의 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 상에 대한 개인적, 보편적 착상들을 모아가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의미의 맥락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확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들은 꿈은 감추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용의 발견을 방증해준다.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제3판, 일조각, 서울, pp212-214.

알코올 중독의 심리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개괄

1. 심리적 이해를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

알코올 중독 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 지역사회 사례관리 및 외래 기반의 치료, 병원 입원 치료로 나뉘며, 알코올 갈망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병식 향상과 변화 동기 고취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신·사회적 치료가 일대일 혹은 집단치료 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다. 치료 도구들은 계속해서 개발·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깊고 가야 할 한 가지는, 어떤 치료 도구든 근본적으로는 중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심리적 이해가 바탕에 있느냐에 따라, 예컨대 환자의 증상이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의미 맥락에서 이해하느냐 등에 따라, 치료 도구의 선택과 적용방식, 추구하는 목표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이해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근본적이고 큰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심리적 이해를 시도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관찰하면서 거기 담긴 의미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완전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한 일일 수가 없다. 그러려고 하는 순간, 주어진 심적 현상을 더는 충실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정 이론이나 가설의 틀에 환원적으로 갇혀서는, 정작 더 이상의 이해는 막히고 마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심리적 설명이든, 그것이 제공해주는 나름의 이해의 지평과 유용성이 있겠지만, 동시에 한계 또한 지닐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결국 심리적 이해에서는, 이해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현상을 편견 없이 그대로 충실하게 수용하고 살피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언제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최대한 반영된 바탕에서 나온 심리학적 설명이라면, 심적 진실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심리학 이외의 타 학파에서의 설명

프로이트(Freud S)의 초기 정신분석이론 발전과정에서, 물질 중독의 심리 현상에 대한 정신 역동적 이해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중독을,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강·유아기 수준으로의 퇴행적 강박충동의 결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 생후 초기의 공격적 욕동, 오이디푸스 전반기의 갈등 등, 공격성의 관련도 고려하게 되었고, 도취상태에서의 기분 고양 경험, 초자아 억압 등이 원인적 요소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중독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강박 충동적 측면에 다시 주목하게 되기도 하였다.³⁾ 하지만 고전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한 치료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분석이 중독 치료에 적용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고, 이후 연구는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⁴⁾

중독에 대한 정신 역동적 이해가 다시 발전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자아 심리학, 대상 관계 이론, 자기 심리학 등의 관점을 적용하면서부터다. 연구들은 주로, 자아 기능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런 가운데 중독을, “심리적인 고통 및 자기 조절이 힘든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진행적 질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⁵⁾ 환자들의 “자기 조절력 결함”은, 그들이 “자기 보호 기능”에 있어 장애가 있거나, “자기 발달 및 자존감”, “대상 관계” 등의 문제, 혹은 “감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⁶⁾ 이에 부합되게도, 중독을 “생존을 위한 적응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의 치료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었다.⁷⁾ 예컨대, 도노반(Donovan JM)은 알코올 중독에 ‘자아 약화’와 ‘자존감 유지의 장애’ 같은 심리 구조상의 결함이 관여되어 있음을 주장했고, 코헛(Kohut)과 발린트(Balint)는 “알코올이 결함 있는 심리 구조를 대치하는 기능을 해 줌으로써 내적 조화감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했으며, 칸치안(Khantzian)도, 알코올 중독증 환자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고 감정조절이나 자기 보호 능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관찰하였다.⁸⁾

애착 이론과 자기심리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플로레스(Philip J. Flores)에 따르면,⁹⁾ 중독의 근저에는 건강한 대인 애착 경험의 결여, 애착 형성의 장애,

3)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중독정신의학》, (주)엠엘커뮤니케이션, 서울, pp60-67, pp95-102.

4)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앞의 책, p96.

5)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앞의 책, p60.

6)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앞의 책, p99.

7)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앞의 책, p99.

8) Gabbard GO, 이정태·채영래(역) (2016): 《역동정신의학》, 하나의학사, 서울, p387.

9) Flores PJ, 김갑중·박춘삼(역) (2010):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도서출판NUN, 서울, pp17-21, pp49-52, pp92-120.

역기능적 애착, 건강한 자기대상 경험의 부재 등에 기인한 심리 구조의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애착 경험, 자기대상 경험을 건강한 방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는 이러한 대상 경험을 돕는데 있어 A.A. 공동체가 지니는 긍정적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동적 이해들은 중독 문제를 안고 있는 의식 자아의 특성에 대한 훌륭한 묘사라 할 만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독 당사자가 ‘삶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적 기초와 태도 속에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좀 더 잘 살필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식 현상도 결국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해 온 분석심리학의 견지에서 보자면, 중독 당사자의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식의 활동을 보상하는 무의식의 표명(表明, manifestation)이 배제된 채로는 심적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의 대상 혹은 그것의 표상으로 여기며 경험해 온 것이 실은 무의식 심층의 내적 요소의 투사도 관계된 것일 경우에는 심리학적 이해가 혼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무의식에서 제공하는 치유적 자원들을 인식하여 삶으로 수용해 갈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중독의 심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할 때 무의식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이해 시도

1) 알코올 중독에 대한 융의 시각

(1) 알코올 입원 환자 치료 현장에서 융의 경험

융은 브루크홀츨리(Burghölzli) 병원 시절, 불안정한 기분과 정신적 퇴행(degeneracy) 및 이에 수반된 심한 알코올 문제가 있는 입원 환자들의 정신적 상태와 행동을 세밀히 살피면서 알코올 중독 특유의 임상 양상과 심리적 특징을 자세히 묘사했던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알코올 사용의 과다가 “자아의 과도한 강조(over-accentuation of the ego)” 및 “감정 과민·우울·비정상적 상태·히스테리적 특성 등 다양한 증상들의 주기적 출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

다.¹⁰⁾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중독에 수반된 중요한 특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박성(compulsiveness)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용은 훗날, “불수의적인 동기 혹은 충동”인 강박에 담긴 심리적 의미를 깊이 조망했던 바 있는데,¹¹⁾ 그에 의하면 강박은 “인간의 삶의 커다란 신비”로서, 흥미에서부터 완전한 사로잡음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작동하며, “우리의 의식적 의지와 명분을 ‘우리 안의 불타올 수 있는 요소’로써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다 태워 소비시키는 불로서도, 생명을 주는 따뜻함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¹²⁾ 것이었다.

(2) A.A.의 설립에 용이 끼친 영향과 만년의 용이 바라본 알코올 중독

1961년 1월 23일, 만년의 용은, Alcoholics Anonymous (A.A.) 공동 설립자 중의 한 명인 윌슨(Wilson B)으로부터 긴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는¹³⁾ A.A. 공동체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의 고리가 용의 진료실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용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고 있었다. 약 30년 전 용에게 치료를 받았던 알코올 중독 환자 롤란드(Roland H)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말해준 게, A.A.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윌슨이 들었다는 내용은 롤란드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음주 문제로 낙담 속에 용을 찾아가 1년쯤 치료를 받았고, 이후 회복에 대한 확신과 희망, 용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품은 채 미국으로 돌아왔었지만, 결국 또 음주가 재발하여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용을 다시 찾아갔고, 그런 그에게 용이 솔직담백하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떠한 의학적, 정신의학적 치료로도 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만약 스스로가 영적 혹은 종교적 경험, 요컨대 ‘진실한 회심’의 주체가 된다면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롤란드에게 준 영향은 지대했다. 미국으

10) Jung CG (1957): CW 1, *Psychiatric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ara151, paras191-203.

11) 용은 동기(動機)의 의식 측면과 무의식 측면을 다 함께 품고 있는 연금술 상징인 황(sulphur)의 의미를 다루면서 강박성에 담긴 근본적 의미를 이야기했다. Jung CG (1989):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ara151.

12) Jung CG (1989): Ibid., para151.

13) Schoen DE (2009): *The War of the Gods in Addiction*, Spring Journal Books, New Orleans, pp9-13.

로 되돌아온 롤란드는, '옥스퍼드 그룹'¹⁴⁾에 합류하였고, 회심(conversion) 후 술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절망적 중독 상태에 있는 그의 친구, 대처(Thacher E)에게 말해주면서 그를 또한 회심과 단주로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윌슨, 스미스(Smith B) 등 A.A. 설립을 주도하게 되는 이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 변화의 연쇄 사슬은 이후 차차, 더 큰 규모로, 여러 조력자에게도 영향을 주며 진행이 되어 갔다.

윌슨의 편지를 받은 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답신을 보내며,¹⁵⁾ 자신이 롤란드와 나눴던 대화의 속사정을 조심스럽게 공개한다. 이는 당시 롤란드의 “알코올 갈망(alcohol craving)”이, 비록 낮은 수준에서 이기는 하지만, “전체성(wholeness)”에 대한 우리 존재의 “영적 갈망(spiritual thirst)”과 동등하다는 것, 중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신과의 합일”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 그러나 그런 통찰을 현시대에 오해되지 않는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용은, 그런 체험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正道는 그 체험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는 “더 높은 이해로 이어지는 길” 위를 걸어갈 때라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길의 목적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세 가지 조력 수단을 제시한다. 이는 첫째, 은총의 개입(act of grace), 둘째, 동지들과의 개인적이고도 정직한 교제,¹⁶⁾ 셋째, 합리주의에만 갇히지 않고 그걸 넘어, 마음에 대한 더 높은 도야(陶冶)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어 용은 현재 세계적으로 “악의 원리(evil principle)”가 만연해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 원리가 진정한 종교적 통찰이나 인간 공동체의 보호벽에 의해 중화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욕구들은 이것에 의해 파멸에 떨어지고 말게 될 거라고, 강한 우려를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용이 볼 적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위로부터의 활동”에 의해 보호받지도 않고 사회에서

14) 초기 기독교의 영성을 내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복음주의적 운동으로서, 192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두려움 없는 자기 검토(self-survey), 고백(confession), 상환(restitution), 타인에의 봉사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고, 명상과 기도를 매우 강조했다. Schoen DE (2009): Ibid., p16.

15) 이는 빌 윌슨의 편지가 그만큼 용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Schoen DE (2009): Ibid., p20.

16) 용은 롤란드가 이 두 번째 수단을 선택한 것 같다고, 그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용은, 용의 언급을 A.A. 공동체의 우정 측면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고 있다. Schoen DE (2009): Ibid., p24.

고립된 채로 있으면서 “악의 힘”에 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응은 마지막으로, 과거 폴란드에게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윌슨에게 피력한다. 응은 “알코올”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영(靈 spiritus)”이라고, “최상의 종교적 경험”과 “최악으로 부패를 시키는 독(毒)”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움이 될 처방을 제시한다.

“Spiritus contra spiritum (spirit against spirit)”

2) 응 이후, 중독 치료 현장에서 시도되었던 분석심리학적 이해

중독에 대해 오랜 시간, 많은 공을 들여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해 온 몇몇 연구자들이 있어, 그들이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1) 레오나르드 (Linda S. Leonard)

레오나르드는 『불을 목격한 사람들: 창조성, 그리고 중독이라는 베일』¹⁷⁾이라는 책을 통해, 그녀 자신의 알코올 중독 극복 경험, 그녀가 치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백, 술에 탐닉했던 작가들의 삶과 작품 등을 두루 살피면서, 중독의 진행·회복 속에서 정신 내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일들이 삶과 관련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삶을 파괴하는 중독의 이면에 실은 삶으로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녀가 볼 적에 중독은 삶에서 창조적으로 쓰여야 할 에너지가 “악마 연인(Demon Lover)”, 즉 자아의식을 결박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파괴적인 심적 요소에 바쳐진 상태라 할 수 있었고, 반대로 회복은 자아의식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Creative Daimon)”, 즉 정신의 진정한 중심에서 오는 “더 높은 힘”에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¹⁸⁾

레오나르드는 먼저, 꿈이나 혹은 각성 시의 삶에서 다양한 원형적 모티브¹⁹⁾가

17) Leonard LS (1989): *Witness to the Fire: Creativity & the Veil of Addiction*, Shambhala Inc., Boston.

18) Leonard LS (1989): *Ibid.*, pp10-12.

발견됨에 주목하면서, 드러난 원형적 모티브의 성격에 따라 중독의 경과를 크게 셋으로 구분했다.²⁰⁾

첫 번째는 “탈주(Flight)”로, 이 시기는 중독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높이 날아” 오르거나 “창조적 영감이 치솟는” 등의 긍정적 경험을 하면서 중독에 깊이 빠져드는 단계이다. 이때는 매혹적이면서도 꺼림칙한 성격을 지니는 원형상 혹은 원형적 모티브들이 의식과 삶에 영향을 드리우게 된다.²¹⁾ 레오나르드가 볼 적에 이들의 핵심 배후에는 트릭스터(trickster) 원형²²⁾이 자리하고 있었다.²³⁾ 이것이 이미 중독의 초기부터 “매우 유혹적인 심적 에너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었고, 중독이 진행되어 부정(否定), 숨김, 자기기만이 일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²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본래의 면목을 드러내며 냉소를 던지고 근본적인 추궁을 해오는 트릭스터의 출현은 자아의 입장에서는 건디기 힘든 최악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과 근본적 변화가 시

19) 융은,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보편적이고 비개인적인 영역이 있음에 주목하며, 이 영역이 각 개별의식의 생성과 회귀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 영역으로서, 여기에는 경험을 산출하는 근원적 조건이 틀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이를 정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을, 풍부한 증거와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던 바 있다. 융에 의하면, 우리는 수많은 민담과 꿈에서, 이러한 원형의 활동이 산출하는 상과 모티브들을 만나게 된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역)(2002)a: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105-155, 참조.

20) Leonard LS (1989): Ibid., preface xvii.

21) Leonard LS (1989): Ibid., pp1-113.

22) 신화나 민담에는 교활한 술수와 거짓말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뜻밖의 서사를 만드는 이중적 성격의 인물들이 곧잘 등장하는데, 신화 연구자들은 이를 ‘트릭스터’라 지칭해 왔다. 융은 민담이나 꿈에 등장하는 무의식의 형상으로서의 트릭스터가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함에 주목했던 바 있다. 노명선은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다양한 민담과 문헌을 살펴,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트릭스터 현상이 “우리 삶의 역설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는 삶의 현상과 원리들을 형성화하고 있다”고, 그림으로써 “불교의 선문답처럼” “의식체계로서는 건딜 수 없는 모순을 던져준다”고, 이것이 기존 의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벗어날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했다.

Jung CG (1968):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노명선 (2022):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트릭스터 원형을 중심으로”, 《심성연구》, 37:(2), p248.

23) Leonard LS (1989): Ibid., p95.

24) Leonard LS (1989): Ibid., p95.

작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끝없는 “추락(Fall)”이다.²⁵⁾ 여기서 중독자의 여정은 어김없이 암흑의 심연, 절망의 밑바닥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닥에 도달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아가 자신의 무력함을 직면하고 완전히 인정하게 됨을 의미하며, 중독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반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점 이후 회복이 일어나는 단계로, 이는 중독 상태에 갇혀 있던 정신의 창조적 에너지가 해방되어 실제 삶의 현실에 투여되고 결실로 이어지도록, 투쟁하는 과정이다.²⁶⁾ 이로써 “악마 연인” 성격의 원형상에 실려 있던 정신적 에너지는 “창조적 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창조적 변환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중독으로부터의 진정한 회복, 자기다운 삶의 회복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추어, 의식에 드러나는 원형적 형상 혹은 모티브의 성격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이 투쟁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과 심적 현실이 아무리 부끄럽고 마주하기가 괴로워도 이제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견뎌내며 책임지겠다는, 아울러 한없이 무력한 자신을 도울 진정한 창조의 힘에 순종하겠다는 의식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녀가 볼 적에 이러한 태도는 A.A. 12단계 회복 원리²⁷⁾에도 잘 반영이 되어있다.²⁸⁾

레오나르도는 중독으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성에는 희생이, 즉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울러 “창조적인 영적 에너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그럴 때 비로소 영적 각성의 기회와 열매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창조적 삶이 선물로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²⁹⁾

25) Leonard LS (1989): Ibid., pp117-209.

26) Leonard LS (1989): Ibid., pp213-353.

27) A.A.12단계는, 단주에 성공한 멤버들이 자신들의 회복 과정을 되짚으며 그들을 회복에 이르게 해 준 핵심 원리를 개념화한 것으로, 깨달음, 고백, 다짐, 실천과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리는 전 멤버들에 의해 공유되는데, 결국은 그 원리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하다. Wilson B, A.A.한국연합(역) (2015): 《의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한국 A.A. G.S.O. 서울. pp59-60.

28) Leonard LS (1989): Ibid., preface xviii.

29) Leonard LS (1989): Ibid., preface xvii, p335, p350.

(2) 페레라(Perera SB)

페레라는, 회복의 길을 밟아가는 중독자들과의 정신 치료적 작업 속에서 그녀가 마주했던 심적 자료들이 ‘켈트 전통 속 메브(Maeve) 여신’ 관련 신화 및 제례에 나오는 내용과 유비적으로 긴밀히 연결됨에 주목했다.³⁰⁾ 흥미롭게도 게일어 “메브(Meadhbh, Medb)”는 “취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고, 메브 여신이 제공하는 성스러운 음료(medb 혹은 mead)를 마시는 행위가 수반된 입문 의례는 켈트 사회에서 성스러운 것이었다.³¹⁾

그녀가 신화적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 확충하며 다가가 본 메브의 본 모습은³²⁾ 자연·대지 그 자체로서의 여신으로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스러운 땅이었고, 그 위에 사는 이들에게 최고의 절대적 힘이자 권위였으며,³³⁾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품으면서 그 안에 다양성을 포괄하는 전체성이었다.³⁴⁾ 이 존재는 “생리혈의 방출을 보류하고 적들과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생리혈을 방출하며” 강을 형성시키는 물의 근원이었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의 흐름으로 방아를 돌리는 창조 신이었다.³⁵⁾

고대 제의에서 이러한 메브 여신의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그들 내면 깊은 곳의 성스럽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의 현현을 경험하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레라가 볼 적에 문제는 고대의 켈트인들과 달리 오늘날의 술 탐닉 현장엔 우리 안의 심적·영적 기반에서 오는 신비에 참여하기 위한 경건한 자세와 의례가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었다.³⁶⁾ 요컨대, 오늘날의 각종 중독 문제와 이로 인한 삶의 위기는 정신 심층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아무런 인식도, 준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하면서 초래된 것이었다. 페레라는 놀라운 힘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며 이를 적절히 삶으로 살려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고대 신화 및 제의의 모티브에서 찾고 있다.

30) Perera SB (2001): *Celtic Queen Maeve and Addiction*, Nicolas-Hays, Inc. York Beach, Maine, p18.

31) Perera SB (2001): *Ibid.*, p18.

32) Perera SB (2001): *Ibid.*, p21.

33) Perera SB (2001): *Ibid.*, pp36-37.

34) Perera SB (2001): *Ibid.*, p35.

35) Perera SB (2001): *Ibid.*, pp36-37.

36) Perera SB (2001): *Ibid.*, p18, p65.

결론적으로 그녀가 주목한 것은 신화 및 제의 속에 등장한 “메브의 음료”를 안전하게 담아 전달해 주는 “용기(用器)”, “통로” 등의 수단들이었다.³⁷⁾ 결국 실제 치료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수단의 발견, 획득, 활용이 중요할 것이다. 페레라는 “메브의 음료”의 다양한 전달 통로, 수단들을 살피면서, 실제 치료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를 획득할 수 있는지, 혹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³⁸⁾

신화 및 제례에 등장하는 이러한 수단으로서 페레라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여성 자체이다. 가톨릭에서의 연결자로서의 성모, 여성의 몸에 상응하는 자연 속의 여러 장소,³⁹⁾ 혹은 여성의 몸의 여러 특정 부위를 연상시키는 제의용 그릇이나 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텅 비어있는 공간, 텅 빈 자체도 같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⁴⁰⁾ 이어 그녀는 제의(ritual) 자체도 이러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실제 치료 현장에서 강렬한 감정이 다루어질 수 있는 치료 환경, 그곳의 치료자, A.A. 등의 회복 공동체, 예술 활동,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 움직이며 감각에도 집중하고 있을 때 경험되고 있는 몸 등도 좋은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메브의 음료”, 즉 정신 심층의 에너지를 적절히 담아 삶으로 들일 궁극의 통로는 페레라에 의하면, 균형 잡힌 의식성이다.⁴¹⁾ 흥미롭게도, 신화 속의 메브는 자신이 낸 과제를 수행한 영웅에게 특별한 컵을 선사하는데,⁴²⁾ “자체의 고유한

37) 신화와 제례를 보면, 이 수단들도 결국은 메브에게서 나오고 있다. 페레라는 이로부터, 여성적 성격을 띠고 등장하는 전체성 혹은 자기(Self)의 의미를 떠올린다. 그녀는 특히, 메브가 자신을 찾아온 신화 속 영웅에게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완수하자 개별적인 컵을 제공하는 장면에서 주목하면서, “개별성이라는 수단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의 자기(Self)가 “여성적 측면”을 띠기도 함을 이야기했다. Perera SB (2001): Ibid., pp379-384.

38) Perera SB (2001): Ibid., pp373-412.

39) 실제로 이런 곳은 많은 문화권에서 신성한 제의의 장소가 되고는 했다. 이러한 예를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40) 페레라는 텅 빈, 수용적 공간의 신성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의 노자도덕경, 음양에서 음의 상징성 등에 주목한다. Perera SB (2001): Ibid., p384.

41) Perera SB (2001): Ibid., pp408-412

42) 이와 관련하여 폰 프란츠가 프시케 신화 속에서 프시케의 세 번째 과제, 즉, 무서운 스틱스 강의 물을 담아오는 일에 사용되었던 물병과 관련해 언급했던 내용을 참고해 볼 만하다. 폰 프란츠는 아프로디테가 프시케에게 준 크리스탈 물병을 무의식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자기(Self)의 창조적 힘”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상징으로 보면서, 이러한 상징들은 인간 영혼에 있는 창조성의 원리만이 스틱스 강물의 파괴성으로부터 영혼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 Von Franz ML, 이도희(역) (2020): 《황금당나귀》, 한국융연구원, 서울, pp128-129.

형태와 의미,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진 이 컵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이라 할 만하며, “자신의 컵을 통해 메브와 감응할 수 있게 된” 영웅은 “리비도의 엄청난 흐름을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을 “구현”한 개성화된 의식성이라 할 만하다.⁴³⁾ 이 의식성은 “의식성 자체에 내재해 있는 모든 역량”을 때에 맞춰 적절히 선택해서 활용하면서 “변덕스러운 정신적 모체(inconstant matrix)”에 “조울할 수 있는” 의식성이다.⁴⁴⁾ 달리 말하면, “활용 가능한 의식성의 스펙트럼 전체”를 “아무런 관점 없는 상태에서 개괄”할 줄 아는, 그러므로 “넓은 스펙트럼의 경험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의식성이다.⁴⁵⁾ 이를 궁극의 영적 각성을 이룬 의식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도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으나, 온전한 회복의 궁극적 귀착지는 결국 이 지점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회복의 길은 결국 이를 향한 도상의 어느 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손(Schoen DE)

알코올 중독 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A.A.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직접 보아왔으며 이로 인해 A.A. 공동체와 A.A. 12단계 회복 원리에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손은⁴⁶⁾ 우연히 용과 윌슨의 편지를 접하고는 이를 계기로 중독 문제와 A.A.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에 오랜 기간 천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A.A. 12단계와 용의 개성화 과정 간에 공유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⁴⁷⁾

손이 볼 적에, 중독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해 묘사해 줄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용의 심리학이었다.⁴⁸⁾ 그간 중독 현상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적 지도(地圖)가 경쟁하듯 제시되어왔고, 그중 일부는 중독의 특정 측면을 포착하게 해주기도 했으나, 오히려 지도 때문에 길을 잃고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터였다.⁴⁹⁾ 그

43) Perera SB (2001): Ibid., p409.

44) Perera SB (2001): Ibid., p409

45) Perera SB (2001): Ibid., p409.

46) Schoen DE (2009): Ibid., preface.

47) 손은 두 과정 모두에서 중심에는 영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아는 절대적 지위에서 물러나 상대화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Schoen DE (2009): Ibid., preface.

48) Schoen DE (2009): Ibid., p31.

는 율슨과 융의 편지에 담긴 특별한 통찰을 핵심적 기초로 하여 그가 치료 현장에서 경험한 것, 융 심리학의 여러 통찰 등을 추가하면서, 중독의 전형적 전개를 잘 묘사해 줄 융심리학적 정신역동지도로 제시하였다.

손은 중독이 깊어져 가는 과정을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1: 자아가 페르조나와의 동일시 속에서 ‘거짓된 자기(false self)’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

단계 2: 개인적 그림자⁵⁰⁾의 심화

단계 3: ‘잠재적이던 중독 행동’이 본격화.

단계 4: 원형적인 ‘중독-그림자-콤플렉스(Addiction-Shadow-Complex)⁵¹⁾의 생성

단계 5: ‘중독-그림자-콤플렉스’가 정신을 지배함.

손이 이러한 중독의 심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건, 무의식에서 강력한 원형적 콤플렉스가 생성되어 의식에 영향을 드리우게 되는 사건이다. 이는 중요한 기점을 이루는데, 이것의 생성 이후로는 자아 심리학적 접근, 통상적인 “정신분석”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사회적 치료들로 효과를 볼 수 있던 문제가⁵²⁾ 무의식 전체에서 오는 근원적 치유력이 동원되지 않고는 해결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인적 그림자와의 씨름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던 문제가 원형적이며 파괴적인 “그림자/악(Shadow/Evil)” 콤플렉스를 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통상적인 한 개인적 자

49) Schoen DE (2009): Ibid., p1.

50) 융은 우리 안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특수한 생활사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감정, 욕동, 성격적 요소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아에 통합되지 못한 어두운 인격 측면인 그림자를 형성하면서 삶에 영향을 드리우게 된다. 그림자의 통합은 자기를 실현해가는 개성화 과정에서 필수적 과제가 된다.

51) 원형들은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서 ‘정신의 비개인적 영역’인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한 개인의 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심적 에너지를 함축한 원형상들을 의식에 산출한다. “원형이 일으키는 감정은 평범한 게 아니라 ‘신성한 힘(Numinosum)’을 내포한 감동 또는 충격이다.” 이를 한 개인의식이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형의 투사를 받고 있는 외부 대상 또한,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존재로 체험되게 된다.

이부영 (2011): 앞의 책, pp113-115.

52) Schoen DE (2009): Ibid., p38.

아 역량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이 지점에서는 분석심리학처럼 무의식 심층의 사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는 관점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손이 불 적에, 중독에 드리워진 원형적인 “그림자/악” 콤플렉스에 대항하는 일은 결국, 폰 프란츠가 말한 “거리를 두고 머무를 줄 아는”, 그러면서 “사로잡히지 않는” 주의 깊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었고,⁵³⁾ 이를 위해서는 의식이 자아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정신의 중심에 있는 더 높은 힘, 즉 “진정한 자기(Self)”와의 연결을 이룰 수 있어야 했다. 그것에 자신을 헌신하고 거기서 오는 힘을 힘입을 때 비로소 자신이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책임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과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중독에 대한 용의 처방인 “Spiritus contra Spiritum”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개성화 과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4) 맥케이브(McCabe I)

맥케이브는 손을 이어, A.A.에 관해 보다 집중적인 분석심리학적 고찰을 시도했다. 그는 AA의 시작 및 발전과 관련하여,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고백과 경험 등을 두루 상세히 살피고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A.A.의 형성과 전개에 동시성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했다.⁵⁴⁾ 아울러, A.A. 12단계의 의미를 고찰하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자아와 “진정한 자기(true Self)”의 싸움을 수반하는 과정임을, 거기에는 자아가 밑바닥까지 추락함으로써 “진정한 자기”가 부활하는 것이 포함됨을 이야기했다.⁵⁵⁾ “진정한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온전한 인간”의 발달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A.A. 12단계 과정과 용 심리학의 개성

53) Schoen DE (2009): Ibid., p69. 손의 폰 프란츠 인용을 재인용 함.

54) 용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온 롤란드(Roland)의 변화. 이후 그가 장차 A.A. 설립에 관여하게 될 이들에게 끼친 뜻밖의 영향. 그 영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파급되어 나간 것, 그들 간에 ‘영적 각성만이 유일한 치료’라는 통찰이 수용되고 공유되며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 그즈음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던 종교 운동과 회심 체험, A.A. 설립에 관여한 이들이 용의 저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 등 맥케이브는 A.A.의 태동과 발전을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체험과 사건의 의미적 연결 고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를 동시성 현상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McCabe I (2018): *Carl Jung and Alcoholics Anonymous*, Routledge, New York, pp1-12, pp21-39, p127.

55) McCabe I (2018): Ibid., p123.

화 과정은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⁵⁶⁾ 두 과정 모두 자기(Self)가 주재의 자리에, 자아는 그에 봉사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여정이 시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⁷⁾

(5) 아던브루크(Addenbrooke M)

아던브루크는 2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알코올·약물 중독과 씨름해 온 열다섯 환자의 고백과 그들을 치료해 온 치료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⁵⁸⁾ 중독에 깊이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크게 다음과 같이 넷으로 구분했다.

- ① 중독의 미로에서 길을 잃음
- ② 전환점(바닥 경험)
- ③ 새로운 과제
- ④ 그 오랜 이후

그녀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전환점에 가까워지면서 당사자들이 강렬한 감정과 함께 ‘의미적 연결 고리를 이루는 동시다발적인 혹은 연쇄적인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는 한다는 점이었다.⁵⁹⁾ 그런 때문인지, 장기간의 단주·단약의 첫 단추가 된 단주·단약 시도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부적처럼 작용하고 있었다.⁶⁰⁾

전환점 이후에는 과거 술이나 물질을 탐닉하느라 외면했던 현실의 삶을 하나하나 직면하고 감당해내는 과제가 시작되는데,⁶¹⁾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흥미롭게도 당사자들은 이를 견뎌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을 얻고 있었다.⁶²⁾ 단주·단약을 실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어떤 변화의 과정을 촉발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회피해 오던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그것과의 개인적 씨름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삶에 대한 통찰이 발전할 계기, 자기 발견과 내적 대화의 계기가 열리고 있었다.⁶³⁾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오는 혜택들”이 부가되는 가운데 통찰은 더욱 자라가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삶을 매일 창조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⁶⁴⁾

56) McCabe I (2018): Ibid., p123.

57) McCabe I (2018): Ibid., p123

58) Addenbrooke M (2011): *Survivors of Addiction*, Routledge, East Sussex, xii, p10.

59) Addenbrooke M (2011): Ibid., p88.

60) Addenbrooke M (2011): Ibid., p84.

61) Addenbrooke M (2011): Ibid., p89,

62) Addenbrooke M (2011): Ibid., pp126-131.

63) Addenbrooke M (2011): Ibid., pp175-179.

64) Addenbrooke M (2011): Ibid., p178.

그녀가 볼 적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결국 그들의 삶이 이후 얼마나 풍요로워졌는가 하는 것이었다. 중독에 빠지게 된 누구라도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서 그 길을 꾸준히 간다면 창조적인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었다.⁶⁵⁾

구체적 꿈 사례들을 통해 바라본 알코올 중독: 분석심리학적 재조망

지금껏 살펴본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중독의 배경에 의식의 근원적인 갈망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응하여 무의식 심층에서도 원형의 배열(constellation)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신 심층에서 올라온 강력한 원형적 에너지가 의식의 미숙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왜곡되어, 삶의 창조적 변화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적 영향을 삶에 계속 드리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독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식 자아가 알코올이라는 엉뚱한 대상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변화가 일어나야 할 삶의 현장과 자기 성찰의 단서들은 외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래서는 내적 에너지가 외부의 투사 대상을 통해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경험될 뿐, 진정한 삶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연구자들은 모두 중독에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부정적·파괴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과의 관계에서 본연의 창조적·치유적 동력으로 건강하게 체험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이를 위해서는 자아의 각성과 기존 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연구자들이 회복자들의 사례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자아의 “밀바다 경험”, 즉 자아가 자신의 모든 주장과 고집을 다 포기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삶의 중심점이 자아에서 자기(Self)로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파국이 유보될 수는 있겠으나, 삶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중독에서의 회복은 그만큼 험난한,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남자 알코올 환자들이 중독 경과의 다양한 단계에서

65) Addenbrooke M (2011): Ibid., p179.

보고한 꿈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코올 중독을 둘러싸고 무의식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피고,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를 확인 및 확충할 것이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적 현실에는 과연 삶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치유와 회복은 과연 어떻게 체험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정신이 제시해 주는 답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무의식에 답을 묻고자 하는 것은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한 인간이란 무의식과 의식을 다 포괄할 때 그려질 수 있는 존재이며, 한 인간의 무의식에는 그가 가야 할 그다운 삶에 대한 본질적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1. 자신의 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에 담긴 의미

환자들이 다들 치료자의 권유에 응하여 꿈을 챙기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흥미로웠던 것은 그래도 이처럼 자신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려 했던 이들은 비록 확연한 단주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와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결연한 단주 의지의 표명이 물론 치료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표명이 없다고 해서 삶을 점검하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태도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한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단주를 꼭 필요한 우선 과제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사실 먼 길이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과 결심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그토록 많은 교육, 정신 사회적 프로그램, 다양한 실제적 도움 등이 제공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단주를 진정으로 결심하게 되는 건 결국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식의 태도는 언제나 그제 비록 씨앗과 같은 미약한 수준의 것이라 하더라도, 치료 현장에서 잘 살려가야 할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수 있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이러한 성찰적 태도를 살려가는 데 있어 자신도 잘 몰랐던 자신의 내면이 보여주는 자료들이 갖는 특별한 유익이었다. 밖에서 제시된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제시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핀다는 설정은 그렇지 않아도 외적 개입에 쉽게 방어적·거부적 태도를 보이고는 하는 알코올 환자들에게⁶⁶⁾ 치료자가 다가가는 걸 한층 수월하게 해주었다.

2. 꿈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초기의 꿈이 보여주는 것들

자신의 꿈을 챙기고자 하면서 꾸게 된 첫 꿈 혹은 초기 꿈들은 꿈꾼 이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담고 있었다. 의미 있는 기억, 잊고 있던 감정을 소환시키고는 했으며, 특히 당사자가 삶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게 뭘지, 과연 뭘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실마리가 될 만한 것도 보여주고는 했다.⁶⁷⁾ 그 때문인지 꿈을 챙기고 꿈에 등장한 것들에 집중하며 연상을 진행해 가는 작업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삶에 한층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었다.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다. [사례 1, A 씨]

44세의 미혼 남자인 A 씨. 원래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위축되며 자기표현도 잘 안하는 성격이었지만 친구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리는 좋았던 A 씨는 30세 경부터, 술을 마시고 나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술이 깨서는 직장에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위축이 되는 일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계속 악화하는 음주 문제로 40대 초반에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반복적인 정신과 입원 이력도 시작되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적절히 조절 음주를 하면서 다시금 직업 생활을 유

66) 이러한 태도는 환자들이 음주 문제로 인해 외부로부터 지적과 조언, 간섭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그간의 사정, 그러함에도 술을 통해 얻었던 긍정적 경험을 포기하기가 힘든 입장 등을 고려한다면, 자아의 통상적 방어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67) 용은 치료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꿈의 내용은 끝없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잘 보면 그런 가운데 많은 꿈 사례들이 우선은 “과거를 제시하고”, “잊혀지고 잃어버린 일들을 상기시키며”, “과거의 어딘가에 파묻혀 있는” “인격의 다른 발달 가능성”의 자취를 들려주어 낸다고, 그런 한편 “의식이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거나 갈등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현재의 사실들”을 지적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미리 앞질러 제시하기도 하고, 환자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원인적 요소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 초기에 꿈이 무의식의 일대한 전체 기획을 의사에게 밝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물론 꿈의 심오한 의미를 환자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치료 상의 실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으나, 예후나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 꿈의 전체 계획에 대한 통찰은 큰 가치가 있다고도 말했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1): *앞의 책*, pp46-47, p123, p145.

지해가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시도는 거의 항상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다시 입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는 했다.

본 연구자는 재입원한 A 씨에게 매번 좋은 결심을 했었음에도 생각처럼 잘 안 되지 않았느냐고, 도대체 그게 왜 자꾸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와 답을 자신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건네며 이번엔 꿈을 한번 꼭 챙겨 보길 권하였다. 그러면서 그 꿈이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A 씨 자신의 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이후 수일이 지나서 입원 7일째에 뜻밖에도 A 씨가 꿈을 하나 보고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보고한 꿈이었다.

(A 씨의 꿈)

형이랑 내가 지금 함께 사는 방이 두 개짜리 집. 그런데 18년 전에 자살한 누나가 집에 와서, 어지러이 쌓여있던 낡은 그릇이며 책들 등 오래된 잡동사니 물건들을 치우고 있다. 누나가 나도 그렇게 하도록 떠밀어 나도 결국 누나와 함께 치우는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형은 안 치우려고 한다. 치우고 그러는 게 귀찮고 별로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돌려보게 된 A 씨에게 ‘그가 다 모르는 자기 마음, 즉 무의식’이 꿈을 통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한 여성적 존재가 등장하여 잡동사니들이 쌓인 채 오랫동안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집을 청소하는 풍경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꿈 시작 부분의 정황이 A 씨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그가 처한 삶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그의 연상은 자신의 삶이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된 집 내부 상태와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데에 자연스럽게 이르고 있었다. 평소 자발적 표현이 좀체 없던 A 씨였지만, 꿈으로 인해, 지난 삶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게 한층 수월해지는 느낌이 었다. 그는 꿈을 계속해서 챙겨 보자는 권유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A 씨는 별거 중이던 부모가 잠시 만났을 때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자마자 친모와 떨어져 새엄마, 친할머니, 8세 위의 형, 6세 위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친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무뚝뚝하고 엄해서 좀처럼 말을 붙이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의 양육 환경은 친모가 없는 가운데 여럿이 모성 역할을 하는 독특한 모성 환경이라 할만 했고, 긍정적 부성 경험의 획득

이 쉽지 않았음을 또한 시사해 주고 있었다. 새엄마는 A 씨를 귀여워하며 잘 챙겨주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무렵 새엄마도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로 어린 A 씨가 집에서 주로 가까이서 의지했던 건 형과 누나였다. 지역 명문 학교에 다니던 똑똑하고 듬직한 형은 그가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따랐던 존재였고, 누나는 그가 가장 쉽게 다가가 의지할 수 있고 투정 부릴 수 있는 존재였다.

또 다른 새엄마가 들어왔으나 할머니 및 부친과 자주 싸우다가 다시 집을 나갔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린 A 씨는 장난을 잘 치던 성격에서 차차 말수가 적고 위축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함께 지내던 누나가 중학교 졸업 후 돈 벌러 공장 기숙사로 나가고, 학교에서도 상급생과 시비가 붙었다가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는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A 씨는, 20대 중반이던 18년 전, 할머니, 부친, 누나가 연이어 사망하는 일을 겪게 되며, 이후로 미혼인 8세 위의 형과 함께 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A 씨에게 긍정적 부성 역할을 일부 해 왔던 형이 차차 보호하고 챙겨주는 모성적 성격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A 씨의 술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때, 뒷감당을 해주는 것도 늘 형이었다. 언제부턴가 그가 닮고 싶었던 형은 어느덧 그에게, A 씨가 어릴 때 할머니나 누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대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있었다.

흥미롭게도 A 씨의 첫 꿈은 그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성 및 모성 결핍의 문제를 시사해 주면서, 지금 그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그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하고 외면해 온 삶의 문제들을 마치 오랜 잡동사니들을 하나하나 치우듯 그렇게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꿈속의 형은 무관심하다. 이는 지금까지 그가 취해왔던 자아의 태도, 즉 ‘형에게 도움을 바라는’ 태도로는 삶의 문제 해결이 전혀 진행될 수가 없음을 시사해 준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아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

다. 어쩌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무의식은 놀랍게도, 오래전 숨진, 즉 의식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그의 누나를 소환해서 등장시킨다. 말하자면, 누나의 모습을 빌어 무의식의 여성적 형상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누나일까? A 씨에게 누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기에 등장시킨 것일까?

이후 차차 알아가게 되었지만 누나는 A 씨에게 어릴 때부터 정서적 교류가 많이 있었던 중요한 존재였다. 함께 놀았고 장난도 많이 쳤으며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A 씨가 특정 가수의 가요를 좋아하게 된 데에도 누나 영향이 컸다. 그러던 누나가 직장 때문에 집을 나가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A 씨는 누나와 소원하게 지냈고, 만나게 되어도 시큰둥하게 쌀쌀하게 대하고는 했다. 그러다 누나가 우울증으로 자살하면서 A 씨는 누나와 사별하게 되었다. 장례식 때 눈물이 났었고 멍한 느낌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는 이후로 오랫동안 그 사건에 대해 별로 떠올리는 일 없이 그리고 누나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별 느낌 없이 지내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별 감정 표현 없이 지내던 성격 특성 또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만성적인 감정적 해리 상태로 이해될 만도 한 이러한 특성은 누나와의 분리 및 사별 이후 그의 의식에서 실종되어 버린 감정 측면과도 관계가 깊은 듯했다. 그런데 누나가 첫 꿈에 조력자로 등장하여 꿈 자아의 곁에서 먼저 정리를 시작하며 그의 동참을 이끌고 있다. 오래전에 사라진 누나가 재등장한 꿈속 사건은 삶에서 오랜 기간 억압·소외되어 있던 감정 측면이 이를 대변하는 무의식의 상(像)과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만하며 동시에 A 씨의 모성 환경 구성에 있어 누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존재임을 고려한다면, 실종되어 있었던 모성 요소의 재등장으로써도 이해될 만하다.⁶⁸⁾ 꿈은 A 씨가 이제는 그의 안에서부터 찾아오고 있는 모성적 힘

68) 이는 꿈속 누나의 형상이 모성적 특성뿐 아니라 모성과 구별되는 여성성으로서 아니라 특성도 가짐을 시사한다. 융은 남성의 무의식 있으면서 여성적 특성을 띠고 심혼(心魂, Seele)처럼 작용하는 심적 요소가 있음에 주목하며 이를 아니마 콤플렉스라고 명명했는데, 아니마는 의식에 다양한 상을 산출하면서, 남성 자아의식을 무의식과 연결해 주는 “영혼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남성 의식이 아니마를 인식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분화, 발달시키는 일은 고유한 개성적 인격으로의 분화·발달·성숙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된다. 민담 『우렁각시』는 이러한 과정이 잘 반영된 이야기라 할 만하다. 이부영 (2011): 앞의 책, p112. 이유경 (2018): 《한국민담의 여성성》,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p257-274.

을⁶⁹⁾ 새롭게 체험하고 힘입으면서 자신의 감정 측면을 다뤄가야 함을, 이로부터 얻는 힘을 삶의 건강한 변화에 활용해야 함을, 이것이 그의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삶의 상황 및 회복의 방향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던 첫 꿈 이후 A 씨는 여전히 어색해하면서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보다는 더 길게 이어가고는 했고, 계속해서 일련의 꿈들을 기억해냈다. 꿈을 함께 살피며 삶을 돌아보는 일은 그에게 성찰적 태도를 좀 더 살리고 키워가는 계기를 열어주었다.

A 씨 말고도 다른 알코올 사례들에서도 첫 꿈이나 초기 꿈들은 꿈꾼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이끄는 소재들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의 사례를 보겠다. [사례 2, C 씨]

음주 상태에서의 성 노출 행동 문제로 행정기관에 의해 입원을 하게 된 C 씨. 처음에는 억울해했으나 조금씩 입원 현실과 단주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치료자의 권유에 응해 첫 꿈을 보고하게 되었다.

(C 씨의 꿈)

낯선 시골의 버스 정류장. 고등학교엘 가려고 버스를 탄다. (지금의 '나'이지만 다시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런데, 타고 보니 학교 가는 버스가 아니고 다른 버스다. 차에서 내린다. 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학교 가는 버스는 이미 놓친 것 같다. 내리고 나니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난다. 그에게 물어보니, 내게 돈을 주면서 근처의 불 켜져 있는 집을 가리키며, 거기서 토권을 사서 버스를 타라고 한다. 나는 토권을 사고, 버스를 탄다. 그리고는 학교로 향한다.

농촌에서 성장한 C 씨는 고등학교 시절을 인생에서 제일 착하게 살았던 기간으로 추억하고 있었다. 성적은 나빴지만, 열심히 다녔고 개근상을 탔으며 모범생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때 품었던 장래 희망에 대해서 기억해 볼 수 있겠냐고 묻자,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평범하게 공장 같은 데서 직장 생활하며 잘 사는 것이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지나온 삶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가 원했던

69) 모성의 품에 대한 A 씨의 기대는 거의 술에 투사되어왔었다고 할 수 있었다.

삶이 틀어진 계기는 20대 후반부터 심해졌던 술 문제였다. 그로 인해 수년간 잘 다니던 안정된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결혼 실패와 여러 삶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꿈의 첫 장면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가고자 하는 꿈 자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꿈을 계기로 그는 자신에게 음주 문제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삶을 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는 걸 환기하게 되었고, 살아온 삶의 이력과 현재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꺼내놓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꿈은 그가 고등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건, 제대로 된 버스가 아닌 엉뚱한 버스를 탔다가 엉뚱한 곳에서 내리길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⁷⁰⁾ 그런 가운데 꿈은, 버스를 잘못 탔음을 알아차리고 하차해서 어딘지 모를 곳에서 헤매고 있는 주인공에게 길을 알려주는 한 조력자를 등장시키고 있었다. 꿈으로 인해 C 씨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게 한층 용이해지고 있었다.

살펴본 두 사례를 포함, 이후 논의될 사례들 모두 알코올 중독에 처한 의식이 자신의 꿈에 관심을 기울일 때 무의식도 이에 부응하여 상(像)을 제시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초기 꿈에 등장한 상들은 당사자가 처한 삶의 상황을 함축적·상징적으로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힘입어야 할 중요한 내적 자원의 존재도 드러내 보여주며, 삶에서 지금 해야 할 것, 앞으로 삶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까지도 제공해주고는 했다. 기억해 낸 꿈 자료들에 집중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따라가 보는 일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한층 진지하게 마주하고 돌아볼 계기를 열어주었다.

3. 단주 실천이 본격화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꿈들: 무의식이 말해주는 중독된 삶의 진실

삶의 이력이 저마다 각양각색이듯 꿈 역시 그러했지만, 그러함에도 꿈 사례들에서 몇 가지 공통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 집단적 수송 수단인 버스의 등장을 통해, 꿈은 현재 그에게 필요한 게 보편적 가치나 방법들의 적절한 활용임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에게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지침이나 규율, 가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주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그런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었다.

1) 새로운 모성 경험이 필요한 삶의 상황: 이에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모성 원형

사실 많은 알코올 중독 사례들에서는 당사자가 보고하는 의식의 자료에서 이미 모성 경험과 관련된 주제가 잘 드러나고는 한다. 인상적이었던 건 꿈 자료에서도 모성 경험과 관련된 주제가 거의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첫 꿈, 혹은 초기 꿈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성 경험 문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는 꼭 다뤄져야 할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한다. 앞서 상세히 다룬 A 씨의 첫 꿈에서 이미 우리는 이를 확인했던 바 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다. [사례 3, B 씨]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했던 80세 남자 B 씨. 그는 청소년기에 고향을 떠나 일찍부터, 남보다 우월해야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 긴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술은 긴장에서 해방되며 활력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던 그가 20여 년 전부터는, 조절되지 않는 폭음과 주위를 힘들게 하는 언행, 금단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입원하면 이제부터는 술을 안 마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3주 만에 퇴원하고, 그러고는 가족들 몰래 혼자 조절 음주를 한동안 이어가다가 결국 무너져 또 입원하고는 했다. 그러던 그가 3주 남짓 기간 지속된 심한 금단증상 후 안정을 찾고서 처음으로 꿈을 보고하였다. 자신이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고, 치료자의 권유에 꿈을 기억해내려는 시도도 해보던 터였다. 꿈이 뭔가 많이 지나갈 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 그가 어느 날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며 첫 꿈을 보고하였다.

(B 씨의 꿈, #1)

어느 산의 절벽. 꽤 높다. 저 아래로 시퍼런 강물이 흐른다. 물을 향해 다이빙한다. 물속 한 50 m쯤 들어왔나? 몸이 조금씩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 두렵다.

B 씨는 실제로 10대 중반 시절, 친구들과 함께 절벽에서 깊은 물에 위험스럽게 다이빙하며 놀고는 했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당시 일을 떠올리며, 지금도 그 시절 물에 막 들어갈 때의 시원함, 몸은 계속 내려가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고 있는 동안의 두려움이 생생하다고, 그런데 꿈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때는 전쟁 직후의 힘든 시

기로, 동네에 위험한 게 워낙 널려있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여러 험한 놀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절벽 다이빙도 그러다 하게 된 것이었다. 남들 다 하는데 자신만 빼기 싫어 덩달아 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갈 때는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으며, 차차 담력과 용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는 했다. 연상을 이어가던 그는 자기가 술을 먹어서 이런 꿈을 꾸는가 싶다고, 실은 살아오면서 뭐든 그렇게 했다고, 술도 그랬다고, 술을 마시면 세상 다 편해졌었다고, 하지만 이제 정말 술은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 씨는 첫 꿈을 계기로 지나온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으며, 폭음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B 씨의 무의식은 이 꿈을 통해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그에게서 이런 일이 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요컨대 그는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뛰어들었다가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그의 삶과 관련해 무의식이 보여주는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은 꿈을 통해 B 씨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우며 그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다 할 수 있었다. 계속 내려가도 발이 닿지 않는 두려운 물속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B 씨가 잘 모르는 그의 내면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은 B 씨가 즉 그의 의식 자아가 바로 그곳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가 뛰어드는 이유나 배경이 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 또한 꿈이 보여주는 B 씨의 문제일 수 있다. 요컨대 그에게는 왜 자신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성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의 음주 이력은 꿈의 상황의 반복, 즉, 부지불식간에 어떤 분위기와 충동에 이끌려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의 반복으로 이해될 만도 했다.

첫 꿈 후 1주 남짓 지나 B 씨는 이번에도 또 물 꿈이라고, 자기가 물 꿈을 참 많이 꾸는 것 같다며 두 번째 꿈을 보고하였다.

(B 씨의 꿈, #2)

깊은 산속이다. 사각형의 넓은 옥조가 7-8개 정도 있다. 나는 그중 한 옥조 안에 들어가 있다. 가슴 정도 깊이인데, 물이 맑고 깨끗하고, 온도도 적당하다. 무척 편안하고 좋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다른 옥조에 머리를 뺨뺨 깎은 한 남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양옆으로 산이 보이고 저 앞으로는 큰 폭포가 보인다. 무

척 아름답다.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옥조들을 채우며 흘러가고 있다.

이 꿈은 물속으로 계속 침강하던 첫 번째 꿈에 비하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서 있고, 분위기도 편안하다. 그런데 꿈속 풍경은 B 씨가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낯설고 비현실적인 성격의 장소이다. 결국 B 씨 내면의 공간이라 해야 할 것이다. 큰 폭포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산속 옥조를 채우고 있다는 설정은 꿈속 풍경이 마음 깊은 곳의 자연, 즉 무의식 심층의 비개인적 영역과 관련된 상징임을 시사해 준다.

폭포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물은 결국 내면의 대자연, 즉 무의식 심층으로부터 공급된 무의식의 에너지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그게 맑고 깨끗하며 온도도 적당히 맞춰져 옥조를 채우고 있고, 꿈 자아는 거기에 안온히 몸을 담고 있다. 편안한 모성의 품을 떠올리게 할 만한 풍경이다. 물론 이는 내적 차원에 마련된 내적으로 경험되는 모성의 품이라 해야 할 것이다. B 씨는 이를 술 같은 외부 대상에 투사하며 추구해왔을 것이다. 꿈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자리한 심적 실체가 비로소 상징적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었다.

몸을 담글 수 있는 옥조는 모성 환경에 대한 경험이 투사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실제로 태어는 옥조와도 같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면서 미래의 출생을 준비한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세례 등 여러 재탄생 주제의 종교적 의례들이 옥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을 빌어 진행되기도 한다. 물과 옥조는 새로운 인격의 탄생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 보편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인류는 물과 옥조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모성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오랫동안 투사해 왔다.⁷¹⁾

71) 실제로 모든 문화권에서, 큰 강, 큰 대지, 큰 바다, 큰 옥조 등은 생명이 비롯되었다가 다시 회귀하는 모성적 근원을 의미하는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다. 강철중은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 문제를 다루면서, 신화와 민담, 민간신앙, 고등 종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다양한 모성 상징을 융의 저작과 여러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며 종합적으로 고찰했던 바 있다. 그는 특히 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성 측면에 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가 문헌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물은 생명력과 정화력, 부정(부정)을 물리치는 힘, 여성적 생산력, 창조의 시작, 만물의 근원, 신성함의 계시 등과 연관되며, 아울러 죽음과도 연관된다. 특히 물에 잠긴은 과거의 모습이 죽고 새로이 태어남을 상징하고는 하며, 이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매장(매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세례 시의 물은 죽음 후의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재생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철중(2007): “남성의 모성콤플렉스”, 《심성연구》, 22:(2), pp97-99.

그렇다면, B 씨의 무의식은 왜 이러한 모성 주제를 꿈에 등장시킨 것일까? 물론 아직은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령이 된 B 씨에게도 모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⁷²⁾ 꿈에 등장한, 머리 깎고 탕에 들어가 있던 한 남자가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욕조에 들기 위해선,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의식의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더 구체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자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탐색이 따라야 했다.

2) 모성 문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부성 문제

알코올 중독 사례에서 특기할 것은 모성 경험 못지않게 부성 경험 문제도 확인된다는 점이었다. 사실, 모성 관련 주제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모성 문제에만 주목할 수는 없다. 실제 심리적 현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떼어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는 늘 하나의 쌍으로 경험되는” 것이며,⁷³⁾ 그렇기에, 어머니만 있는 상황은 아버지의 부재를 더 강렬히 시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⁷⁴⁾ 부정적 부성 경험 자체가 이미 모성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반대 상황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예컨대,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에게 안전한 모성의 품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퇴행적 흐름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폭압 아래에서 어머니의 모성 역할이 왜곡될 수도 있다. 모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보상적으로 과도한 보호와 간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때로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의 아니무스를 활성화하면서 이를 통해 어머니의 모성 역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새롭게 긍정적 모성 경험을 해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부성 경험의 뒷받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자신의 억눌린 감정 측면을 표현하고 수용

72) 물론 고령인 그에게 해당하는 과제의 의미 및 수행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73) 박신, 김계희 (2015): 《부성 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p18.

74) 박신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볼 때 아이가 최초로 관계를 맺게 되는 존재가 어머니이며 아이의 생존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버지도 동일한 무게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임상 현장에서도 문제가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박신 · 김계희 (2015): 앞의 책, p18.

해가고자 할 때도 부성 측면이 적절히 함께 관여하지 않으면, 감정 경험이 감상(感傷)과 퇴행, 무책임한 일탈로 흘러가고 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서는 정작 건강한 감정 체험은 요원해지게 되고 만다.

흥미로운 사실은 AA 공동체에서도 늘 감상에 빠지는 걸 경계한다는 점이다. A.A. 공동체는 품어주고 감싸주는 모성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깨뜨리면 안 될 원칙이나 꼭 지켜야 할 규율적 틀도 또한 제시한다. 이는 A.A.에서 제시하는 회복의 길에서도 모성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성 요소의 관여 역시 중요함을, 결국 그 둘이 함께 가야하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꿈 사례들에서 일차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대체로 모성 주제였으나, 부성 주제의 꿈이 등장하기도 했고, 종종 두 문제가 처음부터 함께 꿈에 등장하기도 했다. 네 번째 사례를 보겠다. [사례 4, D 씨]

53세 남자인 D 씨는 자수성가한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속정은 많으나 감정 표현은 잘 하지 않던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했다. 청소년기, 집을 떠나 대도시에서 유학하며 자취생활을 하게 된 그는, 비록 성적은 자꾸 떨어졌지만 친구들과 잘 놀러 다니며 활력을 얻고는 했다. 그러나 2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 한편에서 찾아오는 쓸쓸함과 허전함을 달래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차차, 여럿이 어울려 술 마시는 분위기에서 활력을 얻는 데 익숙해져 갔다. 20대 후반부터는 술로 인해 직장 적응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곤란에 처하기도 했고, 친밀한 관계들도 잃어가기 시작했다. 30대 중반, 타의에 의한 입원 이력이 시작되었고, 40대 후반부터는 만성적 공허감과 불안, 외로움, 자존감 저하, 현실 적응의 어려움, 조절되지 않는 음주와 금단 등으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D 씨가 꿈을 하나 보고하게 되었다. 입원해서 많이 편안해진 듯했는데, 다시금 답답함과 공허감, 지난날에 대한 후회, 두통, 불면 등이 계속 엄습해와서 그때마다 진통제, 안정제 등을 요구하고는 하던 터였다. 그런 그에게 꿈을 기억해 보길 권유하자,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수 주가 지난 어느 날 꿈을 하나 보고했다. 이후 그는 꿈을 좀 더 챙기려 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꿈들을 계속 보고하기 시작했다.

(D 씨의 꿈, #1)

무슨 식당. 원탁이 여러 개 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부부 동반으로 와서 각자

의 원탁에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보인다. 나만 홀로 원탁에 앉아 있다.

그의 첫 꿈은 바로 첫 장면에서부터 모성 결핍뿐만 아니라 부성 결핍의 문제도 함께 확연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뒤의 꿈들에서 주로 등장한 건 모성 관련 주제이기는 했으나 첫 꿈에서 부성 문제가 함께 강조되어 나온 것에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⁷⁵⁾ 뒤이은 꿈들에서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리를 시작하게 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는 거기서 환자들이 자기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되는 걸 보며 자신도 동참하고자 하게 되는 등 모성적 환경에서 정서적 편안함을 재경험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꿈 이후, 그가 퇴원했다가 음주 문제가 악화되자 부친의 묘소를 방문했었다는 것,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 호흡기를 단 채 아들의 가슴을 정겹게 톡톡 두드리던 아버지를 떠올렸고, 이젠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입원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묘소 방문을 마친 후, 근처의 사찰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구석에서 아무의 눈길도 받지 못한 채 먼지가 쌓인 아기 부처상을 보게 되고, 그 표정이 초등학교 시절 꿈에 나왔던 아기 부처와 너무 똑같이 놀라다가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게 되었다.

(D 씨의 꿈 #2,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물 대신 술이 가득 담긴 수영장에서, 술을 마시다가며 수영을 하고 있다.

(D 씨의 꿈 #3,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비가 내리는 강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구름이 걷히더니 햇빛이 화창하게 드러나고, 물고기도 계속 잡히기 시작한다. 어느덧 나는 망태를 어깨에 메고 산길을 따라 죽 걸어간다. 그러다가 바위벽에 조각된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나를 향해 활

75) 꿈 자아가 홀로 원탁에 있는 장면은 한편으로, 부성 및 모성 콤플렉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아의 태도가 가능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오고 있는 것, 치료자의 권유에 꿈을 기억해 보려 한 것 등이 이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짜 웃는다. 너무 좋다.

술이 가득 차 있는 수영장, 비 내리는 강가 등은 무의식에서 넘실대는 모성적 에너지를 반영하는 상이라 할 만하다. 꿈은 어린 시절부터 D 씨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모성 갈망과 무의식의 강력한 영향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가 이를 건강하게 감당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술도 그에게는 모성의 품처럼, 모성 경험의 매개물로서 다가왔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는 감정적 파도와 내적 충동에 휘말리며 삶이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이미 안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⁶⁾

특기할 것은 어린 시절의 꿈에서 비 내리는 물가에 있는 어린 그를 일으켜 산으로 가도록 이끄는 무의식의 특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드러나자 그는 산으로 향하며, 어느덧 바위벽에 조각된 그를 향해 활짝 웃는 부처님을 보게 된다. 이는 D 씨를 변화된 정신적 상태로 이끌고자 하는 초월적 힘도 또한 그의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의식이 무의식의 강력한 에너지를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의식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활동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무의식의 강력한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곳에 구원과 치유의 모티브도 함께 등장하는 어린 시절의 꿈을 그가 기억해 낸 건 흥미롭게도 그가 부친의 묘소를 방문했던 때였다. 그의 첫 꿈에 모친뿐 아니라 부친의 부재도 함께 등장했던 점을 떠올린다면 이는 특기할 만했다. D 씨의 사례는 건강한 모성 경험을 위해서는 건강한 부성 경험 측면의 역할도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한다.

3) 자아가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운 심적 실체

찾아오는 감정과 삶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자아의 태도는 대부분의 알코

76) 실제로 E 씨는 술이 담긴 수영장의 꿈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될 운명이었다고 분노를 지었고, 자신이 왜 술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용은 어린이의 꿈에 담긴 특별한 의미에 주목하며 이를 주제로 일련의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다. 용은 “무의식은 꿈을 통해, 현재에서는 아직 인식되고 있지 못하나 미래에는 있게 될 인격의 정신적 측면, 미래의 사건들 등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의 꿈에서는, 중요한 미래의 사건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고되고는 한다”고, “때때로, 지금으로서는 아주 이질적인 듯 싶고 설명될 수도 없는 미래 인격이 발달과정에서 형성될 것이 예고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Jung CG (2008): *Children's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18.

을 중독 사례에서 잘 확인이 된다. 이는 그들의 삶이 그만큼 마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이들의 의식에는 삶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 편안한 안식처에 대한 뿌리 깊고 오랜 요구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찾는 만족스러운 피난처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상적인 피난처라면 아마 안전한 보호와 편안한 자극을 제공해 줄 아늑한 모성의 품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어른인 그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곳은 외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당사자를 공상, 자극적이며 중독성이 있는 활동,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질에의 탐닉 등으로 향하게 만들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여정일 수밖에 없다. 실은 실패가 이미 운명적으로 예정된 도피의 여정 그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다.

꿈을 챙기고 살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문득 기억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런 꿈 중에는 무서운 추적자를 피해 계속 도망 다니는 주제의 반복적인 악몽이 많았다. 그런 꿈을 꿀 당시는 대체로 술에의 탐닉이 깊어지다가 그로 인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잘 맞물리고 있었다. 꿈에서는 보통 끝없이 도망가다 안전한 곳에 왔다고 안도한 순간 그곳이 더욱 위험한 곳으로 돌변하는 설정 등이 곧잘 등장하고는 했다. 꿈속 주인공이 때론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하거나 추적자를 따돌리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고는 했다. 이러한 꿈들은, 알코올 중독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심적 상황에 대한 무의식의 상징적 묘사라고도 할 만했다.

사례를 보겠다. [사례 5, F 씨]

62세 남자 F 씨는 10년째 A.A.모임 봉사자 역할을 하며 단주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술 문제로 20여 입·퇴원을 반복했었다. 그 시절은 비록 단주를 약속하고는 했었지만, 술 없는 삶이란 건 그로서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다. 당시, 반복되었던 무서운 꿈이 있었다.

(F 씨의 꿈, #1)

내가 범인이 되어 도망가고 있다. (이런 꿈이 많았다.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왜

쫓기는지, 잘 모르고 쫓기는 경우가 많았다. 꿈에서 깨어 안심하면, 다시 또 무서운 상황이고는 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꿈속이었다. 그곳에서 또 쫓기는 악몽이 시작되었다. 늘 너무 무서워 식은땀이 났다.)

F 씨는 10년 전, 1년 가까이 등산도 자주 가고 교회도 꾸준히 다니면서 음주 충동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폭음으로의 이행은 결국 시간문제였다. 그는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기 직전, 술 마시고 후회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었다. 그러다 폭음이 시작되었고, 과거의 악몽이 더 무섭게 반복되었다.

(F 씨의 꿈, #2)

어딘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 계속 무슨 맹수 같은 존재에게 쫓겼다. 도망가도 계속 위험한 상황이었다. 험한 산속을 헤매다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큰 동굴에 들어갔다가 못 나가고 헤매기도 했다. 그러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다.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F 씨는 이번엔 어떤 일인지, 도저히 전처럼 술 먹은 이유를 떠올려 갖다 붙일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눈물이 났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결심하고 스스로 정신과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치료진 앞에서 처음으로 그때까지 좋게 포장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안 좋은 증상들을 실토하게 되었다. 한 번도 손이 갔던 적 없는 A.A. 책자에 처음으로 손이 갔던 것도 이때였다.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다.⁷⁷⁾

위의 꿈은⁷⁸⁾ 막다른 지점에 도달해 있는 주인공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입원이 F 씨에게는 마지막 입원이 되었다. 그는 퇴원 후 A.A.를 10년여 꾸준히 다니게 되었다.

77) F씨가 절망 속에서 A.A.에 입문하게 된 사건도 “밀바닥 경험”에서 비롯된 자아의 회심 사건으로 이해될 만하다.

78) 깊은 산, 동굴, 몸이 잠기는 물 등은 무의식의 모성적 측면을 드러내는 대표적 원형상이기도 하다. 꿈은 F씨가 모성적 성격의 강력한 원형적 에너지에 휘둘리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에게서도, 모성 경험 결핍 및 모성 재경험의 필요성, 무의식에서 배정되어 활성화한 강력한 모성 원형의 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의식의 상황을 구체적·역동적으로 보상하는 무의식

흥미로운 것은, 단주가 본격화하고 나서는 물론이거니와 단주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도, 환자분들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맞춰 무의식도 매우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 및 자신의 태도를 다시금 숙고해 볼 계기가 열리고는 했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본인도 퇴원을 계획하고 있고 치료자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전혀 다른 치료자가 퇴원을 막고 있고 그래서 그와 언쟁하다가 불편해진다든지, 혹은 퇴원을 앞두고 꿈에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불러 보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음주 상태여서 깜짝 놀라 깬다든지 하는 경우로 인해 퇴원 계획을 수정하게 되기도 했고, 술을 건강하게 마셔서 부러운 한 친구가 죽어 그의 장례식장에 문상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꿈을 꾸고 난 후, 조절 음주에 대한 미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다. 반면, 주인공이 정말로 단주 의지를 공언하고 퇴원 후의 일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홀로 트랙을 계속 돌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장내 아나운서와 관중들이 그걸 응원하며 좋아하고 있다든지, 논에서 벼를 추수해서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간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이 꿈에 등장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꿈들은 의식을 구체적·역동적으로 보상하는 무의식의 활동이 알코올 환자들에게서도 근원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5) 의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수용해야 할 어두운 심적 요소들

꿈을 챙기며 자신의 삶을 살피다 보면 결국 의식에서 소외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 자아의 그림자 측면 등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어두운 요소를 직면하고 살핀다는 건, 환자분들로서는 더더욱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주를 결심하고 술 없는 삶을 이어가려 하는 한에는,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힘든 과정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⁷⁹⁾

4. 단주 유지가 본격화한 이후 무의식의 반응

다음은 수년 이상 꾸준히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꿈 사례를 통해 중독

79) 이러한 어려움도 또한 단주를 결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는 했다.

으로부터의 회복이 과연 어떠한 과정인지,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주인공의 삶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무의식이 알려주는 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술로 인해 특별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라면, 술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정 기간의 단주 혹은 조절 음주를 결심하는 것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의식의 입장에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주를 오랜 기간 이어간다는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전환이 있었기에 새로운 경험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일 터이다.

이어지는 꿈 사례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어떤 여정인지, 그를 위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사례를 보겠다.

[사례 6, J 씨]

50세 남자 J 씨는 A.A. 모임에 3년 가까이 꾸준히 참석하며 단주를 유지하고 모임 봉사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여전히 자기를 속이는 습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를 더 잘 봐야겠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의견을 구하고 수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꿈을 챙겨 보길 권유받게 되었고, 수 주 후에 첫 꿈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일련의 꿈들을 본 연구자와 함께 살펴 가게 되었다.

꿈을 살피기 시작한 지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는 불현듯 2년 전, 그러니까 단주를 시작한 지 4개월에 접어들었던 때에 꾸었던 인상적인 꿈을 기억해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었다. 꿈을 꿀 당시는 그가 처음으로 술 없이 4개월을 이어가고 있던 때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런 가운데 고민 하나를 품게 되었다. 그건, ‘내가 과연 술을 끊을 마음이 정말 있는 걸까?, 실은 없는 거 아닐까?’, ‘내가 몇 달째 술을 안 먹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지는 하지만, 정말 이대로 계속 술을 안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이제는 술을 마시며 살 수도 있고 안 마시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았다. 전에는 술을 정말 먹기 싫어도 안 먹을 방법이 없어서 마셨었던 것

이라면, 이제 안 마시고 지낼 방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다.

(J 씨의 꿈, #1)

마치 우주 공간 같은 텅 빈, 어두운 공간이다. 내 발밑으로 나선형의 계단이 보인다. 나는 계단이 시작되는 맨 윗부분에 서 있다. 그런데 각각의 계단(발판)들이 줄에 매달린 모빌같이 위에서 드리워진 쇠줄로 네 귀퉁이가 붙들려 있다. 나선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계단 길의 중심은 허공이다.

나는 발 딛고 선 곳에서 내가 발을 디딜 계단들을 죽 바라본다. 먼저 ‘첫 번째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두 번째 계단은 보이지 않고, 세 번째 계단은 또 보인다. 계단 자리가 다 발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일단 첫 계단은 내 눈에 보인다. 하지만 왠지 그게 정말 있는 건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 발을 떼기가 겁이 난다.

첫 계단 발판을 묶고 있는 줄을 손으로 잡고 엉거주춤 줄에 몸을 지탱하며 계단을 발로 건드려 본다. 그런데 발에 느낌이 오지 않는다. 어쩐지 그 계단이 ‘정말로 있는 계단’이 아닌 것 같다. 이번엔 그 계단 다음의 계단을 바라본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발을 뻗어 보지만 발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눈에 보이는 첫 계단을 밟을까, 눈에 안 보이는 둘째 계단 쪽으로 뻗을까, 아니면 더 너머의 눈에 보이는 세 번째 계단으로 뻗을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결정을 못 하겠고 무섭다. 나는 결국 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막 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다. 나도 저렇게 떨어질 수 있겠다 싶다.

불현듯 아까는 줄에 몸을 지탱하면서 “압삼하게” 계단을 건드렸기에 느낌이 안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서 밟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쩐지 내 몸을 완전히 그쪽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 이걸 결국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선택인 것 같다. 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으로,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며, 내 무게 중심을 완전히 첫 번째 계단으로 옮기며 계단을 밟는다. 그러자 뜻밖에도, 생각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발판이 느껴진다. 계단이 사실은 있었던 것. 너무도 고맙고, 기쁨의 눈물이 펄펄 나온다. 그리

고는 거기서 다음 계단을 바라보며, 저 계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떨까 생각한다.

이 꿈 이후 J 씨의 삶은 A.A. 모임과 12단계 실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할 만했다. 그는 확고한 단주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게 되었고, 모임에서의 교제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단주 유지 기간도 해를 거듭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단주를 이어가며 맑은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자체가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과 어우러지며, 술 충동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부적 역할을 해주고는 했다. 언제부턴가는 A.A. 12단계를 실천하며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 멤버들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였다.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했다. 돈을 번다는 것보다 매일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중요했다.

J 씨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만한 지점에서 만났던 이 꿈은 증독으로부터 삶이 회복되는 과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무의식의 묘사로도 이해될 만하다. 꿈은 그 과정이 자기 전부를 던지는 결단과 실천의 연속임을 잘 보여주며, 아울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와 함께, 매 단계의 과제 수행 후 제공되는 감정적 체험과 보람 역시 작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허공을 중심에 두고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 구조는 무한(無限)을 중심으로 돌며 진행되는 움직임의 모티브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용이 전체성의 상징적 핵심 구조로 보고 면밀하게 연구한 만다라 형태”⁸⁰⁾와 부합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용은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들에 주목하면서, 이 상징들이 “전체 정신의 중심으로의 집중화 과정” 또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의 중심 형성”을 묘사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용이 불 적에, “정신의 완전히 새로운 중심점의 의식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들은 “만다라의 상징성”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⁸¹⁾ J 씨의 꿈에 등장한 나선 구조는 그가 가야 할 회복의 길이 결국 정신의 중심점을 향해 가는 개성화의 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님을 시사해

80) 이부영(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69.

81)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b: C.G 용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pp56-57.

주고 있었다.⁸²⁾

J 씨의 꿈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삶의 궁극적 회복을 추구하는 길이 결코 녹록한 게 아님을, 실은 개성화 과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음을, 그렇기에 그 열매가 매우 본질적이고 귀한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2) 의식의 새로운 체험과 변화를 자극하는 무의식

(1) 자아에 특별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며 찾아오는, 꿈속 아나마 형상

다음은 J 씨가 이미 단주를 3년 가까이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자와 함께 꿈을 챙기고 살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꾸었던 첫 꿈이다.

(J 씨의 꿈, #2)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이혼한 아내가 와서는 환하게 웃고 있다.

꿈을 꿀 당시, J 씨는 이미 아내에게 7년 전 이혼당한 상태였다. 그는 이혼 후 약 2년 동안 자신이 아내와 친정 식구들을 계속 전화하고 방문해서 따지며 괴롭혔었다고, 반복적인 병원 입원과 노숙 생활이 이어지는 중에도 원한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A.를 다니게 되면서는 아내에게 아예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옳은 일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언젠가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하며 아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의 안부를 듣고는 할 뿐이었다.

J 씨는 20대 초반,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다가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서로 말이 잘 통했으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이 일치하는 게 많았고

82) 융은 “정신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발전이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목표”를 “인간의 전체성”으로 보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목표를 향한 길은 처음에는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 그 방향이 잡히는 듯한 조짐도 아주 더디게 생겨날 뿐이다. 그 길은 직선이 아니고 순환형인 것으로 보였는데, 더 정확히 알아보니 나선형인 걸로 입증되었다. 즉 꿈의 모티브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나름대로 하나의 중심을 표시하는 일정한 형태로 계속 반복해 되돌아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심점’ 또는 ‘어떤 경우이나 처음의 꿈에 이미 나타나는 중심’을 에워싼 배열이다. 무의식적 사건의 표명인 꿈은 중심을 에워싸고 회전하거나 순환적으로 발전하여, 점점 더 뚜렷하고 광범위한 확충을 통해 중심에 다가간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2)b: 앞의 책, pp40-42.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에게 아내는 “내가 괴로울 때 나를 품어 주며 약(藥) 같은 역할을 해 준 사람”,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아내가 이혼을 결정한 것도 그가 볼 적에는 “가족 모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괴로운 결심과 실천을 한 것”이었다.

J 씨의 무의식은 왜 그가 3년 가까이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어 온 그의 아내를 등장시킨 것일까? 주관단계 해석에서 보자면, 꿈에 등장한 아내는 J 씨 안의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무의식은 자신의 꿈에 관심을 돌리게 된 J 씨에게, 활짝 웃고 있는 여성 형상, 즉 그의 마음 안의 여성적인 심적 요소를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다. 그에게는 결국, 이 요소와의 관계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표명에 실제 아내의 모습이 동원된 것은 그가 아내에게서 경험했던 것들이 앞으로 그가 자신 안의 ‘여성적 심혼⁸³⁾’을 체험하고 이해해 감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위에서 J 씨가 아내에 대한 연상에서 떠올렸던 것들이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J 씨가 아내에게 한 배우자가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모성적 돌봄을 기대해 왔고, 아울러 ‘영혼의 동반자’ 같은 원형적 성격의 심적 대상에 대한 예감이나 느낌도 투사해 왔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경험에 대한 요청이 그에게는 일찍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의식 심층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강력한 보상적 움직임이 배정되고 활성화되어 의식에 영향을 드리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적 배경을 갖는 투사를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서 찾기로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아내 역시 그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다가왔던 게 술이었으나, 이도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는 결국 J 씨가 기대했던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일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그의 근원적 요청을 감

83) 융이 “무의식은 남성에게서는 여성적인 징후를, 여성에게서는 남성적인 징후를 갖는다” 언급했듯 실제로 남성의 의식에게 무의식 심층의 요소는, 여성적 특성의 객체로서 흔히 경험되고는 한다. 융은 이를 심혼(Seele), 아니마 등의 용어로 표현을 했던 바 있다. 융에 의하면 “아니마는 남성의 심리학에서 정동과 정감이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것은 직업과 이성(異性)의 인간과의 모든 감정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과장하며 변조하고 신화화한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1): 앞의 책, p29, 참조.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a: 앞의 책, p192, 참조.

당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요청에 반응하여 무의식에서 배정된 정신 심층의 활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 자신이 만나야 할 내적 실체와 관계하기 전까지는 투사와 환멸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 안에서 오는 심상, 감정과 생각들을 직면하고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꿈은 J 씨의 무의식 요소의 오랜 투사를 받아왔을 그의 이혼한 아내를 등장시킨다. 그런데 그를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라면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은 J 씨에게, 실제 아내와는 구별되는 '마음속에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계기를 열어주었다. 자신이 아내에게서 그토록 바랐던 게 무엇이었던 것 같은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등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려볼 수 있었고, 아울러 그가 품었던 바람과 감정은 실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자신의 것으로서 여전히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임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꿈을 살피면서 얻게 된 의미 있는 소득이었다.

(2) 내면의 어두운 심적 요소들과의 조우

계속 꿈을 살피다 보면, 의식이 외면해 온 내면의 어두운 심적 요소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는 J 씨도 마찬가지였다.

(J 씨의 꿈, #3)

내가 혼자 막 욕을 한다. 지금 이게 꿈이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마구 이를 갈면서 계속 욕을 한다. 임플란트를 12개를 해 넣어서 이를 갈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 잠시 깨어 비몽사몽이 되었다가 다시 또 꿈속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여전히 계속 욕을 한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싶다.

꿈은 억압된 분노 감정을 잘 보여준다. J 씨는 최근 직장에서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도 크게 불쾌하고 민감해졌던 일이 있었는데, 실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었다고,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인지를 이 꿈을 계기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언제나 화난 감정에 휩쓸

릴 위험성이 있어 조심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했다. 흥미롭게도 꿈에는 ‘화가 나서 끊임없이 욱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나’, 두 측면이 다 등장하고 있다. 실은 둘 다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꿈은 주인공이 억압된 파괴적 감정에 사로잡힐 위험을 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감정을 인식하고 풀어갈 가능성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J 씨가 해야 할 것은 자신 안의 억눌린 감정 측면에 관심을 돌리는 일일 것이다. 돌봐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미숙한 감정 에너지가 어둠에서 구출되어 삶에 건강하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J 씨의 무의식이 알려준 그의 삶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J 씨는 위의 꿈과 의미상의 연결되는 듯한 매우 인상적인 꿈을 하나 보고했다. 꿈을 꾸고 너무 안타까워 울었다고 했다.

(J 씨의 꿈, #4)

컴컴한 반지하. 교도소인가? 창고인가? 갑갑하다.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걸어가 본다. 그러다가 ‘늑대 소년 같은(어려서부터 늑대와 함께 큰 것 같은)’ 아이가 구석에 있는 걸 발견한다. 순간 벽의 한 작은 창에서 갑자기 빛이 짙 들어오면서 방이 환해진다. 아이를 다시 보는데, 늑대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보니, ‘아! 이 아이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 하지만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다시 어둠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한다. 너무도 안타깝다. 하지만 도저히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포기하고 나 혼자 나온다. 눈물이 난다.

꿈은 J 씨 안에 돌봐지지 못한 아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람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둠 속 늑대들 사이에서 길러진 아이는 의식에서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버려진 미숙한 심적 요소를 반영하는 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꿈속 J 씨가 그 존재에 열린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 안의 소외된 감정을 직면하고 수용해가려는 태도가 의식에 형성되고 있다는 건, 의식과 삶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꿈은 감정 측면을 수용하고 분화·발달시켜가는 이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님을, 길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시

사해 주고 있다.

꿈꿀 즈음은 J 씨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며칠을 후회하던 때였다. 평소 같으면 넘겼을 잔소리를 못 넘기고 단번에 그만두었던 것인데, 그 후 그는 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으며, 자신에게 철없는 아이 같은 미숙한 감정, 충동적인 중독자 기질 등이 여전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자신이 그렇다는 걸 확인하는 자체가 그로서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습도 자신의 모습이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꿈은 J 씨에게 그가 잘 돌보지 못했던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겼던 것, 자신 안의 그림자 측면 등에 대해 좀 더 다가가 볼 계기를 열어주었다.

(3) 진솔한 감정적 요구의 수용을 촉구 : 계속 등장하는 아니마 상들

‘늑대 아이’의 꿈 이후 J 씨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바람, 감정, 요구를 상대하며 타협하는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다.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면 이전처럼 경계하며 거부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것 원하나?’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고, 그런 후에도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계획을 세우고서 그에 맞춰서 하려 했다. 일단 세워진 계획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신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지키려 노력했다. 약속을 지킨다는 자체가 중요했다.

이후 여러 꿈이 지나갔는데, 특기할 건 현실에서 그가 자신의 진솔한 바람·소망을 수용하고 이를 약속된 계획안에서 실천했을 때, 또는 힘든 감정의 파고를 A.A.에서 고백하거나 하며 견뎌냈을 때는 뒤따르는 보람도 컸고, 꿈에서도 활짝 웃거나 격려하는 여성 형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었다는 점이였다. 여성 형상은 성격을 달리했다. 어떤 경우는 모성적 느낌의 존재이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했다. 그 둘이 섞인 듯한 형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등장했던 긍정적 느낌의 일련의 여성 형상들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해갈 좋은 계기를 열어주고 있었다.

3) 정신 심층의 힘이 함께 하는 회복의 길: 삶의 새로운 창조 과정

계속해서 J 씨의 꿈을 보겠다. 꿈을 챙기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매우 인상적인 꿈을 보고하였다.

당시 그는 두 달여, 자신의 감정과 다시금 매우 힘든 씨름을 하고 있었다. 힘든 감정을 추스르고 삶의 보람을 다시 찾아가는 경험을 이미 꽤 해왔던 터였지만, 이번 것은 “급이 전혀 달랐다.” 사태가 시작된 건 그가 두 달 전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였다.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 회복의 소망을 마음 깊이 품고 포기하지 않아 왔었는데, 그 소망이 산산이 조각났던 것이었다. 사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줬던 상처와 잘못을 모임에서 고백하며 신에게 계속 용서를 구해왔었고, 아내가 행복해지길 멀리서 늘 기도해 왔던 터였다. 아내 근처에는 다가가지도 않았다. 보상에 있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그로서는 철저히 피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용서를 구할 때를 얻기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다.

이후의 시간은 그에게 끔찍한 고통이었다. 아내의 집 근처에까지 갔다가 발을 돌리기도 했고, 섬뜩한 충동,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이 폭풍우처럼 수도 없이 지나갔다. 그에게 A.A. 회원들은 큰 힘이 되어주었다. 모임에서 수도 없이 털어놓고 울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회원들이 밤새 함께 있어 주기도 했다.

그러던 그에게 찾아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기도가 정말 신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구한 거라는 것이었다. 정말 신의 뜻을 구했던 거라면, 아내가 새로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해지는 것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이치에는 맞지도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다. J 씨는 이번 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결국, 술 마시며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구나’ 싶었다. 그러함에도 신기한 일은 자신이 꾸역꾸역 A.A. 모임은 나가고 있고 단주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루틴이 된 기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는 원망하다가,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다가, 또 원망했다.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자신이 미친 것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갔고, 그게 어느덧 일 수로 56일을 넘겨가고 있었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힘든 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며, 모임에서 권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보자. 그러다 보면 A.A.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알지 못하던 이유를 언젠가 또 깨닫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내 뜻을 버리고 조물주의 뜻을 기

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 말고 뭘 더 어찌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힘든 마음은 똑같았으나, 초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아픔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다. 이는 억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바라봐지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전에는 그런 아픈 일들이 다 술 마실 구실이었는데, 이제 더는 술 마실 구실도 없게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는 성당에 가서 고백성사를 드렸다.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다. 이어 신부님의 권유로 오랜만에 성체 성사에 참석해서 영성체를 먹었는데, 자신도 이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뿌듯한 느낌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수일 후 꿈을 꾸었다.

(J 씨의 꿈, #5)

무척 고풍한 연못. 수면이 아주 잔잔하고 깨끗하고, 마치 거울 같다. 나밖에 없다. 연못 저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반대 저쪽으로는 물이 나가고 있다. 문득, 물방울이 하나 툭 수면에 떨어진다.

수면에서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파장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 연못의 가장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낯은 벽걸이 시계 같은 게 물에 반쯤 잠긴 채 버려져 있다. 보니까 톱니바퀴가 세 개 돌아가는데, 바퀴 두 개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튀어나와 있다. 고장이 난 시계 같다. 그런데 갑자기 분침이 툭 1분만큼 움직인다. 조금 있다가, 또 툭 1분만큼 움직인다. 고장 나서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분침이 돌아가고 있다. 고장 난 게 아니었나?

이어 물방울 또 하나가 연못에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건 지구에 무슨 작은 혜성 같은 게 하나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떨어진 자리에 물이 잠시 뿌룩룩 올라오다가 싶더니 그와 동시에 엄청난 파장이 주위로 확 퍼져나가면서, 연못 하나가 아니라 전 지구를 보호막 치듯이 순간적으로 캡슐처럼 감싼다. 너무 놀라 주위를 살피는데, 특이하게도 버섯구름은 없다. (핵폭발처럼 버섯구름이 일어났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

J 씨는 꿈에서 깬 후, 무척 신기한 느낌을 받았다고, 특히 두 번째 물방울은 놀랍고 어마어마한 느낌인데 기분이 평안해졌다고,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 했다. 물방울에 대해서는 영성체 때 먹는 입에서 녹는 밀떡, 이슬, 눈물 등을 연상했고, 잔잔한 수면과 관련해서는 비취 보기 좋은 거울, 마음 판 등을 연상했다. 시계에 대해서는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게 뭔가 모르게 고마웠다고 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안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냐고 하자, 뭔가 은총을 받은 느낌이라면서, 힘든 건 여전히 마찬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도, 특이하게도 요즘은 감사하는 마음만 든다고, 살아있는 자체가 고맙고 그냥 뭘 주셔도 좋은, 그런 기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거저 받은 것 나눠주며 살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꿈을 자신 안의 내적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꿈에 등장한 물이 다 모여들고 거기서 또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연못은 정신적 에너지가 발산해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근원적 영역, 즉 전체정신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꿈속의 J 씨가 연못을 차분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 그런 가운데 연못의 표면도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식이 무의식과의 대면에 있어 성실한 관조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준다. 그럴 때 비로소 의식은 무의식의 격랑에 휘둘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심적 사건을 제대로 살피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꿈에 구현된 차분한 관조의 분위기와 잔잔한 수면은 이후 전개되는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 잔잔한 수면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거기 떨어진 물방울로 시작된 동심원의 파장을 눈으로 따라갈 수도 있었고 시계의 존재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J 씨가 꿈을 꿀 즈음은 힘들던 마음이 은총을 받은 듯 신기하게 차분하고 편안해지던 때였다. 꿈은 평안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살피는 것이 성실하게 돌고 있는 시계의 발견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의식은 연못에 툭 떨어진 물방울을 통해, ‘꿈 자아’에게 시계의 존재를 알린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왜 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 시계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시계는 정해진 규칙성, 리듬,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서, 인류의 문명 발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혼란스러운 자연현상 속에서, 낮과 밤,

사계절, 각종 절기 등, 다양한 리듬과 법칙성을 발견하고 자연의 힘을 적절히 생산 활동에 활용하면서 발전해 온 게 인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해 준 대표적 도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은 무의식과 만나는 의식에게도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 무의식과의 조우란 결국 알 수 없는 커다란 내적 자연과의 조우이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혼란스러운 생각, 감정, 충동을 감당하기 힘든 의식에게는 특히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울 적절한 도구가 필요해진다. 의식에 수용된 가치관, 신념, 종교적 신조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J 씨의 꿈은 혼란스러운 정신 현상 속에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울 어떤 것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제공되어 작동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의식화해낼 가능성이 그에게 열렸음을 시사해 준다.⁸⁴⁾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의 꿈의 전개이다. 시계를 되찾은 그의 연못, 그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물방울이 떨어진다. 순식간의 파장으로 전 지구를 마치 보호 캡슐로 감싸듯 품는, 지구 밖에서 떨어진 혜성 같은 듯한 느낌의 이 물방울에는 뭔가 성스러운 느낌마저 감돈다. 이 역시, J 씨 자신 안의 어딘가에서 찾아온 초월적 정신활동일 것이다. 꿈은 J 씨의 삶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그의 무의식 심층의 치유력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J 씨는 이 꿈을 꿀 즈음, 특별한 감정 경험을 했으며, 삶을 보는 관점에서든 큰 변화가 있었다. 두 달여,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것이다. 그는 이제 와보니, 단주를 시작하고서 새로 태어났다고 자축하며 지냈던 3년은 술만 안 먹었을 뿐, 내면의 변화는 없이 외형적 삶의 변화만 있었던 시간이었을 뿐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물론 아내의 일이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이제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어떻게 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의식의 변화는 삶에서 일어난 의미

84) 의식이 힘든 대극적 갈등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에도 무의식에서는 개성화의 시계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심적 진실에 이제는 의식이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꿈 자아’가 확신하게 된 사건은, 자신 안에서 의미 있는 정신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식화해낼 가능성이 J 씨에게 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이해의 소중한 기회가 무의식 현상과의 대면 속에서 생긴 것이다. 이제 J 씨는 이 통찰의 씨앗을 실제 삶에서의 통찰 획득으로 꽃피워 가야 하는 지점에서 있는 것이다.

있는 창조적 사건이라 할 만했다.⁸⁵⁾ 꿈은 J 씨의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정신 심층의 치유적 활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란 결국 그것을 힘입으며 새로운 의식성과 새로운 삶을 창조해가는 과정임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 물론 그에게는 아직 완결이 아닌 진행형으로서, 그가 삶을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할 그의 과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꿈을 살피는 작업을 해 나갔다.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심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앞선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어 중독 환자들의 경험 지평을,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면서 가능한 한 충실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신의 꿈을 살피게 되는 것이 치료 현장에 가져다주는 실제적 유익이었다. 밖으로부터의 조언이나 개입에 방어적·거부적 태도를 보이다가도 본인에게서 나온 꿈 자료를 존중하며 다가갈 때는 한층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는 했던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꿈을 존중하며 살피는 작업은 치료자와 환자 간의 치료적 동맹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의식적 삶의 상황도 한층 더 잘 살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는 꿈 자료들이 대체로 꿈 사람 본인의 경험과 삶의 맥락을 담고 있으면서도 의식의 평소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또한 새롭게 제시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특별했던 건 알코올 중독 사례에서도 어김없이 의식의 상황에 맞춰 이를 보상하는 무의식의 성실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당사자가 중독의 어떤 단계,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문제 해결이 의식적으로는 아무리 막막해 보일지라도, 무의식의 자료도 함께 살피게 될 때는 조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었다. 무의식과 의식을 함께 고려하는 한에서는 알코올 중독도, 깨달아야 할 특별한 목적적 의미가 담긴 ‘삶의 조건’이라 할 수 있었다.

셋째로, 앞선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의 배경

85) 의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로 인해 의미 세계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심리학적 견지에서 진정한 창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무의식 심층에서 활성화된 원형적 정신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맞물려, 이미 주인공의 의식에 무의식의 강력한 보상적 반응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성 경험의 결핍 및 모성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는데, 이는 수용되지 못한 채 의식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진솔한 감정, 좌절된 본능적 욕구, 버겁고 힘든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견딜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안정된 감정적 상태에 대한 의식의 요청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초기 꿈에서부터 등장했던 모성적 모티브들은 주인공이 모성 재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필요를 다뤄가면서 건강한 활력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식성을 획득하고 성숙시켜 가야 함을,⁸⁶⁾ 실은 알코올 중독의 시초에 이미 이러한 변화의 요청이 자리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모성 결핍, 모성 갈망의 모티브에는 부성 결핍 문제와 부성 재경험의 필요성이 또한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건강한 부성 경험 자체가 사실, 건강한 모성 경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성 재경험이라는 과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의식에 유입된 정신 심층의 강력한 에너지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신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내적 사건으로 알아차린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힘든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강력한 무의식의 에너지를 접한 의식 자아는 그 영향으로 인해 기분, 생각,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한껏 고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지만, 보통은 이를 외부의 대상이나 상황, 사건 등에 투사하고 따라가다가 혼란에 처하게 되기 쉽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실, 의식이 무의식의 뜻을 잘 헤아려 통찰해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식에 투여된 무의식의 에너지가 옳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86) 강철중은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모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힌다는 게 어떤 목적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했던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로잡힘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잡아먹히거나 해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다시 뺏기도 하는 성질을 갖는 모성 원형은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으로서의 모성이라고, 모성 콤플렉스에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지, 자연과 무의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가 자극된다는지, 남성 의식이 여성적 섬세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지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이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철중 (2007): “남성의 모성콤플렉스”, 《심성연구》, 22:(2). pp 143.

이다.⁸⁷⁾ 이런 가운데 꿈을 살피는 경험은, 외부의 투사 대상을 쫓던 의식이 관심을 안으로 돌려 심적 진실을 살필 좋은 계기가 되어주었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게 되었던 건 중독 대상을 따라가며 자기 삶의 과제를 외면하려는 의식을 다시 삶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보상의 전체적인 방향성이었다. 도피와 직면 사이에서 자아가 태도를 달리함에 따라 꿈들도 달라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인공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삶에 맞서도록, 찾아오는 감정과 충동, 생각을 견디며 살피도록 촉구하고 있었다. 사실 중독이란 의식 자아가 정신의 심층에서 받은 리비도를 엉뚱하게도 헛된 중독 대상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그 리비도가 활용되어야 할 삶의 현장에서는 도피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래서는 삶에 의미 있는 변화는 생길 수가 없다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아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품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실은 이 자체가 대립물들의 통합을 이끌 정신 심층의 치유력이 무의식에서 배정될 만한 조건을 또한 형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⁸⁸⁾

다섯째로 본 연구에서도 중독에서는 정신 심층의 강력한 원형적 활동에 신중히 조응하려는 의식의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 무의식도 이를 의식에게 촉구하며 아울러 의식의 수준에서 감당해야 할 과제와 지침을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분석심리학은 원형을 마주하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발견해 왔다. 이에 따르자면 원형상은 “의식이 무모하게 의식의 일부로 동화(同化, assimilation) 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그렇기에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아의 오만을 피하고 경건하게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

87) 융은, 원형과 본능은 집단적 무의식의 층위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라고 하면서, 역동(dynamics)으로서의 본능의 이면에는 그것과 연관된 상(象)들의 체계가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요컨대, 리비도에는 그것의 쓰임과 관련한 선형적 형식과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의식이 무의식의 접촉에서 얻은 에너지를 삶으로 잘 살려 나가려면, 무의식이 제시하는 의미적 단서들을 주의 깊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Barbara Hannah(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Illinois, pp144-146, 융 강연 인용 참조. C.G. Jung (1969):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p488-489 참조

88) A.A. 12단계에서 추구하는 회복 과정도, 감당할 수 없는 삶에 위대한 힘이 개입하길 기도하면서 자아가 겸손히,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울이는 주의 깊은 고려의 태도”로 다가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⁸⁹⁾

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독으로부터의 치유는 원형적인 “그림자/악” 콤플렉스를 동화(同化)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중독으로 파괴된 삶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개인적 그림자를 수용해가는 과정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의식에 드리워졌던 원형적인 “그림자/악” 콤플렉스가 중화되면서 의식 자아가 진정한 자기(Self)와 연결을 확립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손에 의하면, A.A. 12단계를 통한 회복의 길은 이러한 “그림자/악”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동안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가장 최근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거슬러 청산해가야 하는 과정이었다.⁹⁰⁾ 레오나르드가 볼 적에도, 중요한 것은 자아의식이 ‘악마 연인’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박되어 있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을 따르는 상태로 전환을 이뤄내는 일이었다.⁹¹⁾

본 연구의 사례들 역시, 진정한 회복이란 결국 어둠 속에 외면해 온 진솔한 감정을 수용하고 개인적 그림자를 통합해가는 과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음을, 그럴 때 정신 심층에서 오는 치유력도 힘입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에 소개한 J 씨의 사례는, 자아 중심성을 포기하고 “높은 힘”, 즉 자기(Self)와 긴밀한 연결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감정과 그림자,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고 견뎌내는 게 어떤 깨달음과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회복이란 완성형이 아닌, 끝없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자체로서, 그 도상에서 획득해가는 보람과 열매도 소중한 것임을 과정이 거듭해 갈수록 초월적인 정신의 힘과 은총을 한층 더 생생히 체험해 가게 되는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알코올 중독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식성의 탄생과 성숙, 새로운 삶의 창조를 위한 정신 심층의 에너지가 의식에 찾아와 있지만 제대로 삶에 관여하지 못하고 파괴적 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심적 상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요컨대, 감당기 힘든 삶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특별한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꿈들은 치유가 필요한 삶의 진실들을 드러내 보여주며, 그에 대

89) 이부영 (2011): 앞의 책, p125.

90) Schoen DE (2009): Ibid., p97.

91) Leonard LS (1989): Ibid., preface xviii, pp11-12.

한 자아의 관심을 촉구하고, 자아의 태도와 관점을 보상하고 있었다. 아울러, 회복을 위해 무의식에서 활발히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음도 시사해 주고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얼마나 이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에 따라 중독은 삶의 파국과 재앙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고 재탄생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일 터이다.

당사자가 무의식의 단서에 반응하며 작은 변화의 계기들을 찾아가는 걸 보는 일은 연구자에게도 보람이었고 의미가 컸다. 자아의 반응에 따라 보조를 맞추며 변화해가는 무의식의 상(像)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언젠가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동인(動因)이 때를 얻어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본 연구자로 하여금 품어보게 해주었다. 매우 어려운 삶의 상황에 있지만 동시에 온전한 삶으로의 운명적인 초대를 받은 것이기도 한 주인공들이 자신의 과제를 잘 수행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본 줄고를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중 (2007): “남성의 모성콤플렉스”, 《심성연구》, 22(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노명선 (2022): “민담 ‘주인집을 망하게 한 하인’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트릭스터 원형을 중심으로”, 《심성연구》, 37(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박신, 김계희 (2015): 《부성 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_____ (2011): 《분석심리학》 제3판, 일조각, 서울.
- 이유경 (2018): 《한국민담의 여성성》,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9): 《중독정신의학》, (주)엠펙커뮤니케이션, 서울.
- Barbara H (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Illinois.
- Wilson B, A. A. 한국연합(역) (2015):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한국 A.A. G.S.O. 서울.
- Shoen DE (2009): *The War of the Gods in Addiction*, Spring Journal Books, New Orleans.
- Gabbard GO, 이정태 · 채영래(역) (2016): 《역동정신의학》 4판, 하나의학사, 서울.
- Addenbrooke M (2011): *Survivors of Addiction*, Routledge, East Sussex.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McCabe I (2018): *Carl Jung and Alcoholics Anonymous*, Routledge, New York.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융 기본저작집 제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2a):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2b):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 Jung CG** (2008): *Children's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57): CW 1, *Psychiatric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68):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69):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89):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Leonard LS** (1989): *Witness to the Fire: Creativity & the Veil of Addiction*, Shambhala Inc., Boston.
- Flores PJ, 김갑중 · 박춘삼(역)** (2010):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도서출판 NUN, 서울.
- Perera SB** (2001): *Celtic Queen Maeve and Addiction*, Nicolas-Hays, Inc., York Beach, Maine.
- Von Franz ML, 이도희 (역)** (2020): 《황금당나귀》,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eong Yeon-gu 2024, 39 : 1

〈ABSTRACT〉

**A Discovery of the Creative Healing Properties
in the Unconscious of Alcoholic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Kihong Baek, M.D.*

This study is an attempt to get closer to the psychological truth of alcohol addiction. After reviewing previous related studies, the experiences of Korean alcoholics were examined, encompassing both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aspects. In order to approach the unconscious,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series of dreams that the patients reported, from the perspective of Jungian dream analysis. Working with dreams brought considerable benefits in increasing patient's involvement in the therapeutic process and fostering therapist-patient alliance. It also helped to understand patients' conscious and unconscious aspects furth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 the conscious level, patients showed a long-standing alienation from their true emotional needs, a lack of sufficient experience in genuinely expressing and being accepted with one's own emotion, resulting in the need for emotional re-experience, along with the intense longing for maternal affection. This also meant that they were in need for maternal re-experience,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associated paternal re-experience. Furthermore, the researcher identified that certain powerful archetypal complexes had been activated in the patient's unconscious in response to their conscious situations, triggering the destructive shadows to emerge and exert a strong influence on their conscious lives.

The series of reported dreams shows how the unconscious always properly and diligently compensates, modifying the perspective and attitude of the conscious and gradually opening the doors to healing, even for alcoholic patients. This indicates that the unconscious carries out a specific and consistent guidance role so the conscious can realize and adequately respond to it, and that it

also provides the creative force for transforming the conscious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lcohol addiction is a psychological condition that can jeopardize one's life by allowing the powerful energy of the unconscious to penetrate the conscious, but at the same time, have the purpose and direction to urge 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one's conscious life.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rst step towards true recovery is for the individual to turn their attention towards the psychological truth occurring within themselves. In this regard, the therapist's role is crucial. This also suggests that various attempts in the field of addiction treatment will blossom their real values when they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development of one's self-awareness since as long as one continues to turn away from the psychological truth and persist in craving for false objects, their creative healing properties in the unconscious could rather have negative and destructive impacts on their life.

KEYWORDS : Alcoholics; Analytical psychology; Unconscious;
Creative healing.